

공간기호학적 관점에서 살핀, 조설근 『홍루몽』의 가족사소설로서의 성격 고찰:

박경리 문학(『토지』를 중심으로)과의 비교를 통해*

김 은 경**

1. 서론

이 글은 중국 청대의 조설근(1715?~1763)이 쓴 『홍루몽』¹⁾에 대한 작품론을 전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작가 박경리(1926~2005)의 대표작인 『토지』(1994~1969)와의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홍루몽』

*이 글은 2015년 2월 12일(목), 서울대학교 두산인문관에서 개최한 〈한국현대문학회 2015년도 제1차 학술발표대회〉의 자유발표 세션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2015년 4월 10일(금)에 수정본을 『관악어문연구』에 투고한바 있으며, 이 글은 그 수정본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1) 조점(曹霑)은 자는 몽완(夢阮), 호는 설근(雪芹)이며, 청나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호화롭던 그의 집안은 그가 10세 전후되던 때엔 완전히 몰락해 버려, 그는 귀족이란 집안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가난한 처지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 한다. 그러한 비참한 생활 속에서 화려했던 어린 날을 회상하고 한탄하며 쓴 작품이 『홍루몽』이라 한다. 『홍루몽』의 창작년도는 조설근이 죽기 전 10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학주, 『개정중국문학사』, 신아사, 2013, p.483. / 이 글은 다음을 기본 자료로 한다. 조설근, 『홍루몽 1-6』, 최용철·고민희 옮김, 나남, 2014; 박경리 『토지 1-16』, 서울출판사, 1996. 인용면수 표기는 다음처럼 내각주로 나타낸다. 인용문(권수, 인용면수).

2) 4장에서 『홍루몽』의 ‘정학(情學)’을 논하는 과정에서는 박경리 문학 전반에서 살필 수 있는 사랑서사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설근의 『홍루몽』과 박경리의 『토지』 간 비교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박경리 문학 전반

에 대한 작품론의 전개는 ‘공간기호학적 관점’을 적용하겠는 바, 이는 이 논문의 큰 틀을 구축하는 방법론이 된다. 아울러서 『토지』와의 비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소설이 모두 ‘가족사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논의의 기초적인 출발점을 이룬다. 이른바, 이 글은 ‘공간기호학적 관점’³⁾ 및 ‘가족사소설’⁴⁾의 장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홍루몽』에 대한 정치한 작품론을 전개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서 박경리 문학에 대한 필자의 기존 논문들을 전제로 하여 두 작가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글은 생존연대가 2세기 이상 차이가 나는 두 작가의 대표작들을 비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양자 간 영향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⁵⁾ 그러나 두 작품 간에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감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겠다.

- 3) 이에 관련하여서는 러시아의 기호학자인 유리 로트만의 연구를 참고한 바 있다. 그는 단테의 『신곡』을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보고 이를 공간기호학의 관점에서 살핀 논문을 발표하였다. Iu. M. Lotman, 「예술적 공간에 관한 소고」,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러시아시학연구회 편역, 열린책들, 1996, pp.13-29.
- 4) 이링 루(Yi-Ling Ru)는 중국의 작가 바진(巴金)의 『격류삼부곡』, Martin du Gard의 *Les Thibault*, John Galsworthy의 *The Forsyte Saga*를 비교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사소설’의 장르적 개념을 귀납적으로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사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그리면서, 동시에 사회 변동의 제반 양상과 역사 발전의 총체성을 재현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Yi-Ling Ru, *The Family Novel-Toward a Generic Definition*, NY: PETER LANG, 1992, pp.5-12. /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박경리 『토지』와 바진(巴金)의 『격류삼부곡』을 가족사소설의 관점에서 비교 논의한 바 있다. 김은경,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巴金)의 『격류삼부곡』 비교 고찰 - ‘가족사소설’의 관점에서」, 『현대문학연구』 29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12. 20.
- 5) 이에 본고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에도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미국학과의 입장에 기대고 있음을 밝혀 둔다. 비교문학의 방향은 자명한 영향과 수용관계에 있는 문학의 비교만을 고집하는 프랑스학과의 입장과 비영향적이고 비수용적인 현상까지도 문학의 비교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의 비교, 번역과 誤譯의 비교, 문학과 타예술의 비교, 문학과 아이디어의 비교로 영역을 넓혀서 비교할 수 있다고 보는 미국학과의 입장으로 대별된다.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1995, pp.47-56. / 우리나라에 『홍루몽』이 번역, 소개되는 과정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조선 말기에 세계 최초로 『홍루몽』 완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낙선

장르적 유사성 이외에, ‘공간’과 ‘감정’의 문제가 작품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주요 논제가 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바 이를 비교연구를 위한 텍스트내적 준거로 삼고 논의를 진행코자 한다.⁶⁾

중국 내에서 『홍루몽』에 대한 연구는 ‘홍학(紅學)’이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학파를 이루고 있을 만큼, 그 작품이 발표되던 청대 연간부터 지금까지 성행해 오고 있다.⁷⁾ 그 연구사를 주제별로는 1) 자서전적 관점에 기초한 고증 연구,⁸⁾ 2) 역사성(historicism)에 기초한 논의, 3) 문화적·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⁹⁾ 4) 문예비평의 시각과 방법을 적용한 논의¹⁰⁾ 등으로 대

체본원역홍루몽이라 하는데, 궁중의 인물들이 주로 읽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복 이후 일역본을 저본으로 증역한 『홍루몽』들이 출현한다. 일본에서는 1940년 하퐁이 전편 일본어역의 숙원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경리가 『홍루몽』을 접하였다면, 그 가능한 시기가 일본어역이 완역된 때부터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최용철,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도서출판 신서원, 2007, pp.19-52, p.471.

- 6) 필자는 다음의 논문들을 통해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김은경, 『『토지』서사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_____, 「갈등구조를 통한 박경리 『토지』의 담론특성/미학 고찰」, 『비교문학』 33집, 한국비교문학회, 2004. 6. 30; _____,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의 경제」, 『(서울대학교)人文論叢』 55집,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06. 6. 30; _____, 「박경리 문학 연구: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8. 2; _____, 「사랑서사와 박경리 문학」, 『(서울대학교)人文論叢』 67집,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2. 6. 30; _____, 「박경리 문학 연구: ‘움직임動’과 ‘멈춤精’의 상상력」, 소명, 2014. 10.
- 7) 여기에서 홍학이란 경학(經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쓰인 것이라 한다. 홍학사를 시기별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대 말기까지의 舊紅學시기, 2) 民國 이후(五四運動이후 신문학이 성행하던 때)의 新文學시기, 3) 대륙과 대만 및 해외지역으로 갈라져 발전된 現代紅學시기, 4) 국제회의 등으로 각 지역 홍학연구가 공동의 장에서 통합되는 當代紅學시기. 崔溶澈, 「論文提要 清代紅學研究」, 『中國小說研究會報』 18, 1994, p.111.
- 8) 胡適과 俞平伯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中國新文學運動 시기의 대표적 『홍루몽』 연구자로서, 『홍루몽』을 조설근의 자서전으로 보고, 그에 따른 고증연구를 전개하였다. 호적이 1921년 「紅樓夢考證」을 발표한 이래 고증과가 향후 50여 년간 홍학사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胡適, 「紅樓夢考證(改定稿)」, 『胡適紅樓夢研究論述全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俞平伯, 「紅樓夢辨」,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9(모두 다음에서 재인용함. 高啟喜, 「中國新文學運動 초기의 『紅樓夢』評價에 관한 考察」, 『中國小說研究會報』 8, 1991, p.17-24).
- 9) 『홍루몽』에 나타난 情의 美學을 살핀 논문들 가운데 이러한 부류의 연구사를 살필

별할 수 있다. 전체 홍학사를 놓고 볼 때, 이 가운데 주류를 이룬 것은 2)의 역사성에 기초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이와 더불어 4)의 연구사적 계보를 잇는다고 할 수 있다. 2)는 중국내에서 그 동안 홍학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할 수 있다. 이 글 또한 문학사회학을 전제로 하는 ‘가족사 소설’의 관점에서 『홍루몽』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2)의 연구사와 맥이 닿는다 할 수 있다. 그 동안 중국 내에서 성행해 왔던 역사성에 기초한 『홍루몽』 연구는 다음의 경향성을 드러내 보임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작품의 배경이 된 청대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반봉건’을 핵심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둘째, 『홍루몽』을 연구하는 당대의 현실과의 관련선상에서 『홍루몽』의 현실관을 살피는 논의가 그것이다. 이 두 경향성은 대체로 역사성에 기초한 연구사들 내에서 착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¹¹⁾

이 글은 가부(賈附)의 몰락과정을 서사의 중심선으로 간주한 가운데, 세 부적으로 공명과 경제, 도덕, 그리고 혈연의 연속성이라는 문제들을 주 쟁점으로 하여 『홍루몽』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할 것인바, 기존 논의에서 ‘반봉건’이라는 용어로 포괄되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청대(清代) 현실

수 있다. 崔炳圭, 「紅樓夢賈寶玉情案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校 82學年度 博士學位論文; Lee, Haiyan, “Love or Lust? the Sentimental self in Honglou Meng”,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19, 1997(모두 다음에서 재인용함. 조미원, 「紅樓夢」에 나타난 情의 紋事化 樣相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4, pp.21-23).

10) 이와 관련하여 노신이 “『홍루몽』이 출현한 이후로 전통적 사상과 작법이 모두 타파되었다”고 한 언급이 주목되며, 하기방의 『홍루몽』 비평이 거론되고 있다. 魯迅, 『中國小說의 歷史的變遷』, 魯迅全集 第九卷.; 何其芳, 「論紅樓夢」, 『紅學三十年論文選集』, 百花文藝出版社, 1983(차례로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함. 高啟喜, 「中國新文學運動 초기의 『紅樓夢』 評價에 관한 考察, 앞의 논문; 高啟喜, 「하기방(何其芳)의 《홍루몽》 비평」, 『中國語文論叢』 29, 2005).

11) 대표적으로 魯迅과 毛澤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魯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 第九卷(이는 高啟喜, 「中國新文學運動 초기의 『紅樓夢』 評價에 관한 考察, 앞의 논문, p.15에서 재인용함.); 高啟喜, 「文化大革命시기의 《紅樓夢》 평론 小考」, 『中國語文論叢』 27, 2004. / 다음은 역사주의 시각에서 『홍루몽』의 현실의식을 살핀 고려대 박사논문에 대한 요약문이다. 高啟喜, 「論文提要 『紅樓夢』의 現實批判的 意義 研究」, 『中國小說研究會報』 18, 1994.

에 대한 논의를, 전제왕권과 가부장권의 대칭적 관계 및 정학(情學)¹²⁾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서 작품전반에서 주요한 모티프가 되고 있는 죽음의 문제, 작품의 중후반부터 탄력적으로 전개되는 결혼의 문제들을 통해 작품에 내재하는 청대 현실에 대한 전망을 또한 생물학적 측면에서 엿보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전개될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공간기호학’의 일관된 관점으로 전개될 것인바, 이를 통해 문학사회학적 관점에 4)의 문예 미학적 관점이 접맥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동안 『홍루몽』의 서사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전개된 바 있으나,¹³⁾ 『홍루몽』의 전체 서사를 세부적으로 아우르면서 일관된 관점으로 그 ‘구조’—내용·형식일원론을 포함하는 개념임—를 구명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홍성함에서 쇠망으로 부침하는 가부의 가족사적 흐름을 공간기호학을 통해 구조화하여 밝힘으로써 『홍루몽』의 서사미학을 또한 밝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예시(豫示)한 바에 따라 『홍루몽』에 대한 정치한 작품론을 전개할 것인바, 이는 본고가 목적으로 하는 비교 연구, 나아가서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보다 확대된 논의들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다만, 자기표절의

12) 일찍부터 『홍루몽』의 주요 쟁점이 되어 온 정(情)의 문제를 이 글에서는 정(情)의 함에서 無함까지를 포괄하는 큰 틀에서 살피게 될 것이다. 이는 정과 음란의 이원적 관계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시각이다. 이러한 정(情)의 문제에 합의된 바를 공간기호학과 문학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피게 될 것인바 정(情)의 문제는 홍학의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를 따로 ‘정학(情學)’이라 칭한다.

13) 『홍루몽』의 서사구조에 대한 논의는 홍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반세기 동안의 『홍루몽』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대략 각종주선론(各種主線論), 그물식 구조론(網狀結構論), 대칭구조론(對稱構造論)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중국 학자들은 차례로 다음과 같다.何其芳, 「論紅樓夢」, 『紅學三十年論文選集』, 百花文藝出版社, 1983; 劉敬圻, 「紅樓夢主題多義性論綱」, 『中外學者論紅樓』,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1989; 周汝昌, 『紅樓夢與中華文化』, 北京: 工人出版社, 1989(모두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함. 조미원, 앞의 논문, pp.28-32. 조미원은 위 논문에서 정(情)의 서사화 과정을 『홍루몽』의 공간을 (환상공간, 현실공간, 환상공간으로의 회귀)로서 파악한 가운데 논의하고 있는 바, 주제와 구조 간 관계를 구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홍루몽』의 서사구조를 논의한 국내 논문으로는 액자를 이루는 서시층위들을 중심으로 서사구성양상을 논의한 다음의 논문이 있다. 高旼喜, 「《紅樓夢》의 구성양상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 23, 2002.

문제, 지면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박경리 문학과와의 대등한 비교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을 미리 밝혀둔다. 필자가 발표한 박경리 관련 기존 논문들을 전제한 가운데,¹⁴⁾ 두 작가의 문학에 내포된 핵심적 사항들에 대한 비교 논의를 간략히 전개할 것이다.

II. 『홍루몽』의 서사구성 및 공간성에 대한 개괄

『홍루몽』의 서사구성양상은 다원적이기에, 일찍이 논자들은 그 주선(主線)과 부선(副線)이 무엇인지, 다원적인 서사단위들이 미시적 혹은 거시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주목해 왔다. 가족사의 홍망이라는 가족사소설의 기본 서사구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홍루몽』은 공명과 경제의 측면, 도덕적 측면, 그리고 죽음과 결혼의 양상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그 부침이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¹⁵⁾ 이 글에서는 이를 우선, 가족사의 홍망이라는 중심 서사 축을 구성하는 부분적인 서사단위들인 것으로 보고 각각 가정관련서사, 왕희봉관련서사, 대관원관련서사, 그리고 결혼관련 서사로서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들 각각의 서사단위들은 유기적인 구성체로서 『홍루몽』의 전체 서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 서사단위들은 나름의 공간기호학적 지형을 이루고 있는 바, 이는 <그림 1>을 통해 본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14) 각주 6)에서 열거한 필자의 논문들 및 단행본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 비교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제한 필자의 논문들을 각주를 통해 나타낼 것이다.

15) 이러한 측면들은 주선과 부선, 혹은 그물망처럼 전개되는 서사구성 등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바이지만 기존 논의들은,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가운데 『홍루몽』의 서사 구조의 전체상을 일관된 관점에서 규명해 내고 있지는 못하다.

〈표 1〉 가부의 몰락과정을 주축으로 하여 살핀, 『홍루몽』의 서사구성 양상

회수	공명의 득실 (가정관련서사)	경제적 파산 (왕희봉관련서사)	도덕적 파탄 (대관원관련서사)		혈연의 연속성 문제 (결혼관련서사)
			사사—문장	의음(사랑)→ 음란	
5					〈보옥, 꿈속에서 대허환경을 봄: 주요 인물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예언〉
11		㉔. 왕희봉, 고리대금을 시작함.			
17-18			원비의 성친별원으로 대관원을 완성		
23			㉕. 임대옥과 가보옥, 대관원에 꽃무덤을 만듦.		
24		㉖. 가운, 주정뱅이 예이의 도움으로 왕희봉의 권세에 기대 대관원 일을 맡음.			
30				㉗. 가보옥, 임(가장)을 그리는 영관을 엮봄.	
33				㉘. 가정, 장옥함과 의 일로 가보옥을 매질함.	
36				㉙. 가보옥, 가장과 영관이 연모하는 장면을 엮봄.	

회수	공명의 득실 (가정관련서사)	경제적 파산 (왕희봉관련서사)	도덕적 파탄 (대관원관련서사)		혈연의 연속성 문제 (결혼관련서사)
			시사-문장	의음(시랑)→ 음란	
37	A. 지방관(학정) 임명		㉔. 해당화시사 모임		
55		㉔. 왕희봉, 유산으로 병이 들.			
58-64		㉔. 태비의 홍거로 주인들이 집안을 비움./가경의 죽음.	㉔. 이환과 가 담춘이 집안 일을 하게 되 어 시사모임 단절.	㉔. 58회. 가보 옥, 죽은 적관 을 향한 우관 의 진심을 알 게 됨.	
65-69	B. 가련, 가사의 명으로 평안주 를 두 차례 다 녀움.(가사 탄 핵과 관련됨)	㉔. 가련, 우이저를 첩으로 맞이함. / 왕희봉, 우이저가 자살하도록 유도 함.		㉔. 68-69회. 우이저의 자 살	
70			㉔. 도화시사로 개명, 시모임 재개 시도.		
71	C. 지방관(학정) 임무를 마치고 귀경한 가정			㉔. 사기-반우 안의 밀회를 원앙이 엿봄.	
72		㉔. 왕희봉, 병이 남. 혈붕증.			㉔. 영춘의 혼담
73-74				㉔. 수춘낭의 발견, 대관원 수색	
77-78				㉔. 청문, 음란 의 누명쓰고 병들어 죽음.	㉔. 설보차, 형무 원 비움.
79					㉔. 설반-하금계 결혼 가영춘-손소조 결혼

회수	공명의 득실 (가정관련서사)	경제적 파산 (왕희봉관련서사)	도덕적 파탄 (대관원관련서사)		혈연의 연속성 문제 (결혼관련서사)
			시사→문장	의음(시랑)→ 음란	
81			㉞.가정은 가 보옥을 직접 서당으로 데려 가 문장공부를 하도록 함.		
85	D.가정, 공부원 외랑으로 승진				④.죄 짓고 유 배 가는 설 반 (음란)
86	E.가정은 청탁 을 넣어, 살인 한 설반이 과실 치사로 판결받 아 사형을 면 하도록 도움.				
92	F.모주(母珠)를 통해 이합집산 을 깨닫는 가정.				⑤.왕희봉, 가보 옥과 설보차의 혼담 건넨.
93-94				㉡.가근과 문 란한 관계를 맺은 수월암 의 여승들을 대관원에 억 류함.	
94-95			가보옥, 통령보옥을 잃음./원 비의 봉어.		⑥.가보옥, 가모 의 처소로 옮김.
96	G.강서양도에 제수된 가정				
97- 98	H.가정, 보옥의 결혼 다음날 임 지로 떠남.				⑦.안채, 가보옥 의 결혼/소상관, 임대옥의 죽음.

회수	공명의 득실 (가정관련서사)	경제적 파산 (왕희봉관련서사)	도덕적 파탄 (대관원관련서사)		혈연의 연속성 문제 (결혼관련서사)
			사사→문장	의음(사랑)→음란	
99	I.부임 당시 좋은 관리가 되기 위해 맡은 일을 엄격하게 처리하던 가정은 아전들의 횡포에 한걸음 물러나 하급관리, 아숙, 하인들의 농간을 모른 채하게 됨.				
100					⑧.가담춘-진해 통제 주경의 아들 간 결혼.
103	J.가정, 절도사의 탄핵을 받음. 관직만 삼등급 강직시켜 이전 처럼 공부원의 랑에 명하면서 즉시 상경하라는 황제의 칙지가 내림.				
104	K가정, 탄핵을 받아 강서양도직에서 물러나고, 경성에 올라와 황제폐하께 사죄.	⑧.가운의 배은망덕에 분노한 예이는 가부의 흉문을 내기로 함.			
105	L.가사와 가진이 탄핵을 받아 세습직을 잃고, 가사, 가련, 가진이 가산을 물	⑩.왕희봉, 고리대금으로 모은 돈을 모두 잃음.			

회수	공명의 득실 (가정관련서사)	경제적 파산 (왕희봉관련서사)	도덕적 파탄 (대관원관련서사)		혈연의 연속성 문제 (결혼관련서사)
			사사→문장	의음(사람)→음란	
	수당함.				
107	M.가사와 가진이 유배가고 가정은 영국공의 세습직을 되살려 받음.				
108					⑨.사상운의 결혼
109-110		①.사태군(가모)의 죽음./왕희봉은 돈이 없어 장례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			⑩.가영춘의 죽음/사상운 남편의 폐병/설보금, 결혼 예정
111-112		①.하삼, 도적떼를 끌어들임.		③.묘옥의 납치	
114		④.왕희봉의 죽음.			⑪.형수연-설과 결혼
115-116					⑬.가석춘, 출가함. 〈보옥, 태허환경의 꿈을 꾸고 선계인연 깨달음.〉
118					⑭.결혼한 설보금/이가-진보옥의 결혼이 진행 중.
119					⑮.가보옥, 과거분 후 출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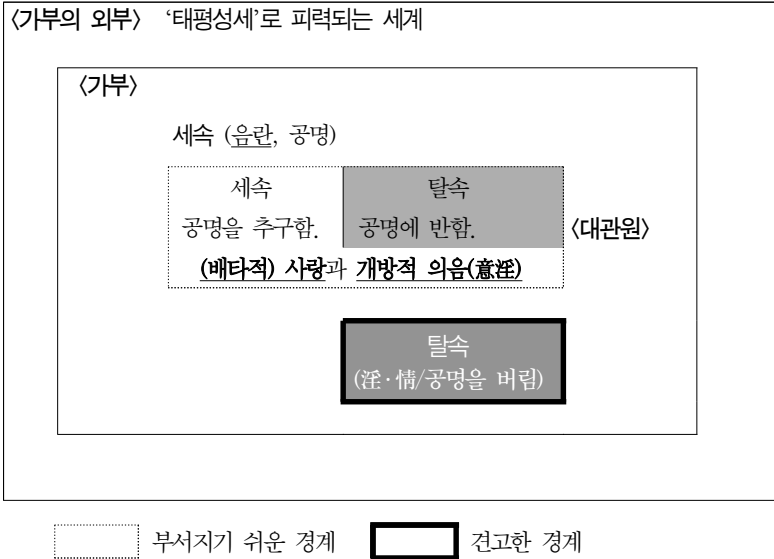
총 120회로 이루어진 『홍루몽』의 서사 가운데 55회 이전까지는 그 흐름이 완만한데 비해, 왕희봉관련서사의 ㉔(55회)에서, 가부의 안살림을 맡음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부의 가부장권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 왕희봉이 유산으로 병이 든 것을 경계로, 55회 이후부터는 공명의 득실, 경제적 파산, 도덕적 파탄, 혈연적 연속성의 위협 등의 서사단위 내 갈등양상들이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른바 65회에서 69회에 걸쳐, 105회 L에서 이루어질 공명과 경제의 측면에서 가부 몰락의 결정적 사건이 되는 탄핵과 가산물수의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71회부터 대관원의 성격 변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72회에서부터 가부 인물들의 혼담과 혼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각각 도덕적·생물학적 측면에서의 가부 몰락을 이끄는 모티프들이라 할 수 있다. 흔히 『홍루몽』은 “다른 중국의 장회소설에서 보는 것 같은 파란만장한 변화나 대단원이 없”¹⁶⁾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그런데 가부의 몰락과정을 큰 틀로 놓고 이를 이루는 네 개의 서사단위들을 세부적으로 살필 때, 『홍루몽』은 가부몰락의 징후들을 점진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그것이 가속화되는 서사적 굴곡을 뚜렷하게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홍루몽』의 서사단위들, 즉 가정관련서사 및 왕희봉관련서사, 대관원관련서사, 그리고 결혼관련서사들을 통해 각각 〈중심〉-〈주변〉의 문제, 〈내부〉-〈외부〉 간 ‘경계’의 문제, 그리고 〈내부〉-〈외부〉 간 ‘결연’의 문제와 같은 공간기호학적 함의들을 추출해 볼 수 있다. 『홍루몽』의 공간성을 거론한 기존 논의는 이 작품의 공간을 환상공간과 현실공간으로 대별하고, 여기에 각각 태허환경과 가부를 결부하는 한편, 가부 내에서 다시 대관원과 그 외부의 세계가 이원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이는 『홍루몽』이 그 자체 내에서 표면적으로 대별하고 있는 공간인 바, 이 글에서 서사단위별로 그 공간성을 추출하고 있는 것과는 그 관점이 상이하다 하겠다. 〈그림 1〉에서와 같이 『홍루몽』의 공간을 조감함으로써, 『홍루몽』에 내재하는 〈중심〉과 〈주변〉, 〈내부〉와 〈외부〉의 공간성을 공간기호학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16) 김학주, 『개칭중국문학사』, 앞의 책, p.483.

17) 조미원, 앞의 논문.

〈초월세계: 태허환경〉



〈그림 1〉 『홍루몽』의 공간 조감도

가정관련서사 및 왕희봉관련서사를 통해 〈중심〉과 〈주변〉의 공간기호학적인 관계에 천착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태평성세로 피력되는 〈가부의 외부〉에서 전제왕권이 대변하는 〈중심〉과 지방관/그의 수하들/백성들이 대변하는 〈주변〉의 모순, 후자는 〈가부 내〉의 주인(〈중심〉)과 종들(〈주변〉) 간 모순을 보여준다. 본고는 〈가부의 외부〉 및 〈가부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모순들이 상호 길항하는 양상을 통하여, 공명의 득실과 경제적 파산의 측면에서 가부의 몰락 과정을 밝힘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태평성세’로 피력되는 당대 사회의 진면목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현실관을 규명하겠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III장에서 상론할 것이다.

IV장에서는 〈대관원〉의 성격과 그 변화의 양상에 주목하여, 〈대관원 내부〉와 〈그 외부〉의 관계가 이원적이라기보다는 양자의 경계가 부서지기 쉬운 특질을 보임을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관원〉을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탈속의 공간으로 보는 기존의 입장에 반하여 〈대관원〉에 세속성과

탈속성이 공존함을 살필 것이다. 이러한 〈대관원〉과, 〈그 외부〉 간의 경계는 부서지기 쉬운 것인바, 〈대관원〉이 공명 추구와 무관한 시사(詩詞)의 세계에서 공명 추구의 수단인 문장(文章)의 세계로 이행해 감을 밝힘으로써 이를 입증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정의한 바 있는 『홍루몽』의 ‘정확’을 통해서도 〈대관원〉의 성격변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정확은 크게 보았을 때, 情의 有함에서 情의 無함까지를 포괄하며, 세부적으로는 淫亂과 情, 그리고 意淫 등으로 개념적인 분화를 이루는 바, 이들 간의 경계가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먼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살필 것이다. 이어서 이 글의 주된 관점인 공간기호학의 측면에서 정확을 이루는 개념들 간 경계가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논하겠다. 즉, 〈대관원〉은 『홍루몽』의 전반부에서 淫과 대비되는 세계로서 존재하나, 〈그 외부〉인 〈가부〉와 〈가부의 외부〉로부터 淫이 투입해 감으로써 그 성격이 변화하고 결국은 폐쇄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서도 도덕적 파탄에 따른 가부의 몰락과정을 여실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V장에서는 『홍루몽』에 나타난 결혼관계들, 즉 가부 〈내부〉 인물들 간 사랑과 결혼, 가부의 인물과 그 〈외부〉의 인물들 간 결혼들에 주목할 것이다. 가문의 내부에서 친척 간의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 가부와 가부의 외부 인물 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를 살피는 과정에서 가부의 몰락 과정을 살필 것이다. 단명함, 출가, 사나운 풍파와 죽음 등의 파국에 직면하는 이러한 결혼관계들은 〈중심〉 간의 결연, 이른바 계층적인 순혈주의가 와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대 봉건사회에 대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엿보게 될 것이다.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통해, 『토지』를 중심으로 본 박경리 문학세계와 『홍루몽』 간에 ‘공간’ 및 ‘감정’의 측면, 그리고 양자의 관계의 측면에서 확연하게 변별되는 점들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V장에서 살필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도 〈중심〉의 동일성과 그 와해라는 측면에서 두 작품 간 유사점이 그 정도의 차이를 노정한 가운데 존재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각 장에서 『홍루몽』에 대한 작품론을 전개한 이후, 핵심적 변별점은 유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박경리 문학과의 비교 논의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고려를 함으로써, 200여 년의 시간적 격차 및 공간적인 이질성이라는 두 작품의 발생론적인 토대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III. 중심과 주변의 모순 간 길항과 가부의 몰락

1. 황제의 강력한 중앙집권과 태평성세임의 피력

『홍루몽』은 우리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드러나듯이, 특정한 연대와 공간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 전개된다. 그럼에도 당대가 태평성세라는 인식이 주요 인물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을 낳는 주요한 근거는 바로 강력한 황권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부 내에서 가정, 가사, 가정 등의 세대에게서 엿볼 수 있는 가부장권의 부재(혹은 약화)와 대비되어 <중심>과 <주변>의 공간성을 구축하면서 중요한 의미망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본 III장의 두 절을 통해서, 이른바 황제의 나라인 국가와 귀족 가문인 가부 간에 일종의 대칭적 원리가 그 홍망성쇠의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가정관련서사를 통해 황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이 작동하는 원리를 살필 수 있다.

각주의 표에서 정리한 가부의 인물들¹⁸⁾ 가운데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인물은녕국부의 가진, 영국부의 가사와 가정이다. 가진과 가정은 각각녕국공가대선과 영국공가대화에게 내려진 세습직을 물려받았으며, 가정은 황제가 공신가문의 자제를 귀히 여겨 하사한 벼슬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가정은『홍루몽』의 중심인물인 가보옥의 부친으로서, 가모(賈母)로 불리는가대선의 부인 사태군을 직접 모시고 있는 2세대 인물이다. 이에『홍루몽』 서사의 근간을 이루는 가계의 가부장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세습직을 이어받고 있는가진과 가사의 경우와 달리 그의 벼슬살이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그 부침

18) 가부의 인물들을녕국부와 영국부로 구별하고, 세대별, 성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절(Ⅲ.1.)에서는 가정의 벼슬살이에 나타나는 영고 성쇠를 통해 황권의 영향력 하에 구현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태평성세의 진면목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가정의 벼슬살이의 득실 과정은 앞의 〈표 1〉의 가정관련서사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앞에서 정리한 가정의 이력은 그의 벼슬살이의 득실과정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바, 공명의 유실과 관련된 서사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알파벳대문자(정자체)로 번호를 붙인 내용은 가정이 황제의 은덕을 입어 공명을 얻고 유지하거나 되찾는 사항이며, *알파벳대문자(이탤릭체)*로 번호를 매긴 부분은 가정이 황제의 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실제로 황제의 징벌을 받게 된 사건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볼 때, 황제의 은덕과 황제의 징벌(사항)간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가정이 행한 공과에 비추어 볼 때 황제의 은덕은 넘치고 징벌은 미미하다는 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녕국부寧國府		영국부榮國府		비고
	부자관계	부녀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1세대	가대화賈代化		가대선賈代善 (사태군史太君)		
2세대	가경賈敬		가사賈赦 (형부인邢婦人)	가민賈敏(임여 해林如海)*	
			가정賈政 (왕부인王婦人)		
3세대	가진賈珍 (우씨尤氏)	가석춘賈惜春	가련賈璉 (왕희봉王熙鳳)	가영춘賈迎春	*임대옥 林黛玉 (가민의 딸)
			가주賈珠 (이환李紈) 가보옥賈寶玉 (설보차薛寶釵)	가원춘賈元春 가탐춘賈探春	
4세대	가용賈蓉 (진가경秦可卿, 후처)			가교저賈巧姐 (가련의 딸)	
			가란賈蘭 (가주의 아들)		

가정이 그의 벼슬살이의 과정 중에 직접적으로 탄핵을 받은 *I*(99회), *J*(103회), *K*(104회)의 사건에 주목해 보자. 처음으로 실제적인 지방행정(양곡 관리)을 맡은 가정은 좋은 관리가 되겠다는 의욕에 넘쳐 관직에 임하지만, 하급관리, 아전, 그리고 경성에서 데리고 내려간 하인들의 횡포에 못 이겨 그들의 자심한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 주게 된다. 이른바 윗사람에게도 좋고 아랫사람에게도 좋은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올바른 지방관으로서의 자세를 과기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탄핵을 받게 되는 바, 그 이면에는 결혼으로 친척 간이 된 절도사가 가정의 일처리가 주목을 받게 되자 보다 큰 화를 면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손을 쓴 정황이 자리한 것으로 예측되어진다(102회). 돈을 써서 하급관리 혹은 아전이 되고, 한몫 챙기기 위해 가정을 따라 나선 하인들이 백성들을 착취한 사건의 현장은 가려지고, 같은 관리들끼리 서로 봐주기 식의 탄핵을 단행함으로써 가정은 보다 큰 화를 모면하고, 강서양도(江西糧道)직으로 승진하여 가기 전의 자리인 공부의 낭중으로 복귀하여 귀경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래적인 다스림의 대상이어야 할 백성에게는 황제의 은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L(105회)과 *M*(107회)의 과정을 통해서도 황제가 징벌해야 할 내용보다 공신의 자제임을 감안한 황제의 은덕이 크게 작용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가사는 평안주의 지방관과 결탁하여 소송건을 도맡아 행함으로써 비리를 저질렀다는 탄핵을 받는다. *B*(65-69회) 등 전후 서사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탄핵 내용은 사실임이 분명하지만, 가사의 변명과 어사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가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게 된다. 부가적인 탄핵사항이라 할 수 있는, 석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노리개에 불과한 부채를 빼앗은 사실만이 징벌의 대상이 되어 애초에 그가 탄핵을 받은 보다 엄중한 사건들, 가사가 지방관과 결탁하여 권세를 믿고 약한 자를 능욕한 사건들에 대한 징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도 가사가 지방관과 결탁하여 저지른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황제의 은덕이 백성에게 고루 미치지보다 공신의 후손인 가부에 과하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성의 관리들 및 이들과 결탁하는 지방관들, 그리고 하급관리와 아전들

및 백성들을 각각 〈중심〉과 〈주변〉으로서 경동맥과 모세혈관으로 비유한다면, 황제의 은덕과 징벌은 경동맥을 오가는 정도에 그치고, 그 모세혈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홍루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황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에 내재한 한계와 반복하여 피력되는 태평성세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공명과는 무관한 삶을 지향하는 가보옥이 질타하곤 하는 “국록을 도적질해 먹는 무리들”(⑥, 338)의 면모란 바로 이러한 것이라 하겠다.

『홍루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여러 건의 소송을 통해서도 황권의 한계와 태평성세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설반이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한 소송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바, 두 경우 모두 제대로 된 판결과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설반이 향릉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소송건에 대해서는, 벼슬살이의 득실과정을 통해 공명의 영고성쇠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 가우촌이 개입한다(4회). 그는 가부의 먼 친척이 되는 인물로서 가부에 청탁을 넣어 벼슬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바, 금릉(金陵)에서 설반의 사건을 맡게 되는데 “벼슬자리 지켜주는 부적”, 일명 호관부(護官符)(①, 100)에 들어 있는 가문을 건드리지 말라는 이전의 충고를 받아들여 복지부동의 자세로 설반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마무리한다. 또 다른 소송은 설반이 성 밖에서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한 것인데, D(85회), E(86회), K(104회)와 관련을 맺는다. 가정이 공부원의랑으로 승진하는 D에서 설반은 살인을 저지르고 간한다. 승진한 가정은 E에서 청탁을 넣어 설반이 과실치사로 판결 받도록 돕는다. 가정은 K의 탄핵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E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탄핵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설반은 부유하였던 집안의 재산이 바닥이 날 만큼 돈을 쓰고 풀려나게 된다. 『홍루몽』의 서사에 따르면, 지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판결 또한 황제의 관할 하에 놓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바, 지현에서 군, 형부의 순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누적된 비리는 결국 대사령, 황제의 은덕이라는 미명하에 살인 죄인을 풀어주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이력 가운데 그가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탄핵을 받기에 이르는 96회 이후의 서사가 전개되기 전인 F(92회)에서, 가정을 방문한 풍자영 대감에 의해 소개되는 진귀한 물건 모주(母株)는 황권과 황은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중심〉에 있는 하나의 커다란 구슬에 매어달리는 작은 구슬들이란, 황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보고 난 후 가정의 서재에 모인 문객들이 가우촌(賈雨村)과 강남의 진(甄)대감을 통해 공명의 영고성쇠와 벼슬살이의 득실에 대해 나누는 대화 또한 이 모든 것이 황제의 은덕 혹은 징벌에 의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가우촌은 명리를 앞세워 배은망덕하고 부정을 행하여 승승장구하는 인물로서, 결말 부분에서 결국은 탄핵을 받아 평민으로 강등되지만, 징벌보다는 황은을 과하게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대감은 가부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공신의 후예로서 황제의 징벌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황은을 입어 가문을 일으킨다. 이 모든 과정에는 모주에 해당하는 황제의, 은덕과 징벌이 불균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홍루몽』은 한편으로 황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가 태평성세를 구현하고 있음을 피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래적인 통치의 대상들인 〈주변〉의 백성들이 그러한 황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리들에게 미치는 황은과 징벌의 불균형을 통해 이러한 면모를 살필 수 있었다.

2. 강력한 가부장권의 부재와 공명의 훼손 및 경제적 파산

이처럼 태평성세임이 피력되는 국가의 상황과, 공신 가문인 가부의 흥망성쇠 간에는 대칭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본 절(III.2.)에서는 이를 살피겠다. 앞에서 살핀 황제의 은덕과 징벌간의 불균형과 대칭하는 것은, 가부 내에서 ‘주인의 관대함과 엄격함 간의 불균형’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황권과 짝을 이루되 변별점을 보이는 가부의 가부장권에 대해 살피겠다. 이른바 가부에는 가문 전체를 통제하는 막강한 가부장권이 부재한다고 할 수 있다. 가문을 다스리는 권리들은 주인

들의 그것으로서 분리되어 있으며, 그것이 관대함과 엄격함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녕국부와 영국부로 분리된 가부는 2세대 인물에 이르러, (일찍 세상을 떠난 자손은 제외하고) 세 가계가 한 가문을 이루게 된다. 가정, 가사, 그리고 가정이 각 세대의 가부장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가정은 가모를 모시고 있기에 세 가계 가운데 중심이 되는 가계의 가부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가부장으로서의 지위가 굳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은 신선이 되겠다는 결심 하에 일찍이 출가하여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의 아들로써 3세대 인물인 가진이 녕국부를 통솔하지만 그는 추후에 논의되겠지만 도덕적인 파탄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가사는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린 호색한이자 게으른 인물로서, 앞에서도 살핀 바 있듯이 세습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이나 챙기는 인물이다. 그 또한 자신의 아들-며느리인 가련 부부에게 영국부의 중심 가계인 가정 집안의 일을 맡겨 놓은 채, 집안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가정은 유교이념에 충실한 긍정적인 인물형상으로 등장하지만, 그 역시 공무에 바쁜 사람으로서 집안일과 일부러 거리를 두는 인물이다.

이처럼 막강한 가부장권이 부재한 가운데, 공명과 경제, 그리고 도덕(풍기문란)—이는 이 글에서 가족사의 흥망성쇠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들이다—과 관련하여 여러 주인들이 각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의 가계를 놓고 볼 때, 가정은 공명에 치중하여 가문의 일에 간여하되, 가보옥의 입신출세와 관련하여 특별히 엄격함을 나타내 보인다. 풍기문란에 대해서는 왕부인이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정경제(살림)는 가사의 후손이지만 가정의 집안일을 봐주고 있는 가련(왕희봉) 부부, 특히 왕희봉을 통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가부장권이 여러 인물들에게 분리된 가운데, 가부의 가풍으로 이어 내려오는 하인들에 대한 관대함이 허술함을 낳음으로써 가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에서는 엄격함과 관대함 간의 불균형이 공명의 유실과 경제적 파산을 동시에 낳게 되는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가부의 몰락과정을 <중심(주인)>과 <주변(하인)>의 관점에서, 상황 및 주

체의 문제점들로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다. 주인이 닦친 상황과 그들 자체가 담지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하인들이 닦친 상황과 거기에서 비롯하는 문제점들이 그것이다. 가부는 하인들, 시녀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가문인 바, 이러한 상황은 막강한 가부장권의 부재와 맞물려 하인들의 나태와 방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주인의 관대함은 하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낳는 일차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인은 귀비의 집 안이기에 황실의 길흉사에 관여하여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상황에 처하거나, 공무로 집을 비우고, 오랜 병을 앓는 등의 상황에 처하여 집안 관리에 허술함을 보이는 한편, 이에 반하여 과도한 엄격함을 보이기도 하는바 이는 하인들과 부리는 사람, 그리고 외부인들의 원성을 사게 된다. 이처럼 <중심(주인)>의 관대함과 엄격함은 <주변(하인들)>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이러한 <주변>의 문제들은 <중심>을 허무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바, 이에 대해 상론 하겠다.

앞에서 정리한 가정의 이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L(105회)에서 가부의 몰락이 급전직하로 이루어진다. 세습직들을 박탈당하고 가산을 몰수당하는 바, 공명을 잃음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된 것이다. 가진의 탄핵내용, 가련의 재산몰수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독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엄격함이 이 일의 일차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왕희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녀는 들어오는 것은 작고 나가는 것은 많은 가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고리대를 놓아 수만 냥을 모은다.¹⁹⁾ 그리고 유부녀를 빼앗아 첩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은 L(105회)의 가진의 사건 또한 왕희봉의 지독함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왕희봉은 C(65-69회)에서 가련이녕국부의 가진가용 부자의 도움을 받아 첩(우이저)을 들이자, 억지 소송을 일으키고 남의 손으로 살인까지 하는 등의 만행을 유가적인 미덕을 지닌 여인의 탈을 쓰고 자행하는 바, 이는 L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의 이러한 부도덕한 엄격함은 하인들에게까지 파장을 미쳐 그들을 통해 외부에서 ‘소문’

19) 『홍루몽』의 서사 초반인 ④(11회)에서부터 왕희봉이 비밀리에 고리대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을 이루어 원성을 사고, 급기야는 어사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하인들을 통해 외부에 소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포이(鮑二)와 예이(倪二)이다. 포이는 가련이 비밀리에 첩으로 들인 우이저와 새살림을 할 때, 신흠집에서 하인노릇을 한 인물로서 그의 아내는 소문난 바람둥이로 가련과도 정을 통한 바 있는 인물이다. 그는 주인들의 필요에 따라 녁국부와 영국부를 오가며 부도덕한 일에 간여하다, 결국 녁국부의 가진에게 내침을 받는데, 어사가 가부를 탄핵할 때 그를 불러 가부에 대한 홍문이 사실인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이는 가부의 외부 인물이면서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인물로서,²⁰⁾ 고리대를 하는 주정뱅이다. 그는 ㉔(24회)에서 가부의 낮은 향렬의 인물인 가운(賈芸)이 왕희봉의 지시를 받아 가부의 일을 맡아 하면서 돈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데, 추후 그가 고위관직에 있는 가우촌의 행차를 방해하는 주정뱅이 행세를 하다 간헐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가운에게 부탁하여 가부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 그런데 왕희봉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은 가부로 들어가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자, 대충 꾸며서 예이 가족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배은망덕을 범하게 된다. 그 결과 다른 방법으로 풀려난 예이는, ㉕(105회)에서의 탄핵사유가 되는 가부의 치부들에 대한 소문을 자신의 무리들에게 퍼뜨려 가부가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㉖(104회)에서 하게 된다. 『홍루몽』은 ㉖가 ㉕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회장의 연속성은 그 인과성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이처럼 예이-가운-왕희봉-가부로 이어지는 관계망에서, 바깥에서 사람을 부리는데 있어서도 〈주인〉으로서 엄격하게 권세를 부리는 왕희봉이 그 〈주변〉 부위에 치명적인 소문의 틈새를 만들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막강한 가부장권의 부재함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 〈중심〉의

20) 제24회. 가운과 소홍의 만남: **주정뱅이 예이**는 재물 내어 의협을 기리고 / 어리석은 소홍은 수건 잃고 사랑에 빠졌네, 제104회. 옛정을 못 잊는 가보옥: **주정뱅이 예이**는 행패 부려 평지풍파 일으키고 / 어리석은 보옥은 옛정을 못 잊어서 괴로워하네 / 예이는 이처럼 가부 외부의 하층인물로서는 유일하게 각 회장 제목에 이어 기술되는 사구(詩句)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관대함에서 비롯하는 하인들의 문제점은 단적으로 가부 내의 하인들 가운데, 최초에 녁궁공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낸 충성스런 하인 초대(焦大)를 제외하고는, 충성스런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관대함은 오히려 배은망덕을 낳아 하인들은 자기들의 잇속 차리기에 급급하며 술과 노름에 절은 나태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배은망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장원에서 소작인들이 보내오는 물품을 관리하는 주서와, 주서의 비리를 주인 가진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앞서의 포이 간 다툼이 주서의 양아들 하삼과 포이 간 싸움으로 비화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결국 가부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L(105회)²¹⁾과 ①(109-110회)의 사건이 이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하삼(何三)은 ①에서 가모의 장례식이 진행 중일 때 가부에 도착때를 끌어들임으로써 가부의 경제적 파산에 중지부를 찍은 사건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가부의 하인들이 결정적인 배은망덕을 범한 것과 달리, 가부에 들이닥친 도착때를 몰아내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은 강남의 진씨 댁이 몰락하였을 때 진대감의 추천으로 가부에 있게 된 포용(包勇)이 유일하다. 결과적으로, 중문을 중심으로 그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는 가부 내에서 밖의 일을 맡아보는 〈주변〉의 하인들 가운데 충성스런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²²⁾

가부 내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서도 황권의 영향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변〉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의 부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이는 방종과 낭비 등과 같은 〈중심〉의 자체적인 모순과 길항하여 가부가 공명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파산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21) 앞에서 포이가 가부의 탄핵사유가 되는 소문을 어사에게 확인해 주었음을 진술한 바 있다.

22) 하인들의 우두머리인 집사들, 즉 녁대(籲大), 내승(來昇), 임지효(林之孝), 오신등(吳新登) 등도 가부의 위세에 힘입어 각자 치부하여 호사를 누리지만, 가부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힘을 보태지는 않는다. 이는 중문 안의 주인들의 거처에서 시중을 드는 시녀들 가운데 충성스런 인물들, 즉 습인(襲人), 자견(紫鵲), 평아(平兒), 원앙(鴛鴦) 등이 존재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바이다.

3. 박경리 문학(『토지』를 중심으로)과의 비교 논의

필자는 기존의 논문을 통해, 박경리의 『토지』 또한 ‘가족사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임을 논한 바 있다.²³⁾ 그런데 조설근의 『홍루몽』이 부귀한 가문의 몰락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박경리의 『토지』는 가문의 몰락과정보다 훼손된 가문을 복원하는 과정을 서사의 본령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본고는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이 차이가 두 작품의 공간구조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고, 그 변별점을 살피는 데에서 본 비교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른바 ‘공간’의 문제는, 직관적으로도 포착되는, 『홍루몽』과 『토지』 간의 커다란 변별점이라 할 수 있는바, 여기에 내포된 공간기호학적·문학사회학적 함의들을 정리해 보겠다.

『홍루몽』은, 귀비의 성전을 위해 완성된 대규모의 정원으로서 여러 전각들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담은 <대관원>을 포함한, <가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가부의 외부>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가정중심서사에서의 ‘공명의 득실’과 관련하여서 ‘주요 갈등이 유발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홍루몽』은 <가부의 외부>에서 발생한 이러한 갈등상황이 <가부>의 공간으로 집중되는 양상으로 서사전개가 이루어진다. 한편, 『토지』는 경상남도 하동의 <평사리>를 근원적인 공간으로 하고 있지만, 광대무변하게 확장되는 <그 외부>가 작품의 주요 공간으로서, ‘갈등해결의 가능성과 실마리들을 제공하는 곳’으로 존재한다.²⁴⁾ 『홍루몽』이 모든 갈등이 <가부>로 모아지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집중적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토지』는 근원적 공간에서 야기된 갈등상황이 <그 외부>의 공간에서 해결되어가는 ‘확산적 공간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건들이 가부를 중심으로 한, <중심>으로 모아지는 『홍루몽』의 공

23) 김은경,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巴金)의 『적류삼부곡』 비교 고찰: ‘가족사소설’의 관점에서, 앞의 논문.

24) 필자는 이러한 『토지』의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기존 논문(김은경, 「갈등구조를 통한 박경리 『토지』의 담론특성/미학 고찰」, 앞의 논문)에서 처음 논한 바 있다.

간 구조는 청대의 강력한 중앙집권의 한계, 이와 대칭적으로 그것의 부재함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부장권의 문제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루몽』은 이러한 〈중심〉의 궤멸이 〈주변〉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함을 〈중심〉을 중심으로 한 서사전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토지』는 일제강점하의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만주, 동경,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는 광활한 공간을 배경으로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를 통해 주권을 상실하고 〈중심〉을 잃은 식민지 백성들이 〈그 외부〉에서 모색하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토지』의 이와 같은 측면은, 태평성세와 부귀영华的 허명 하에 놓인 〈중심〉이 〈주변〉의 모순과 길항하여 궤멸하는 과정을 〈중심〉에 초점을 맞춘 서사전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홍루몽』의 경우와 변별되는 공간기호학적·문학사회학적 함의를 갖기에 주목되는 바이다. 『홍루몽』이 이러한 〈중심〉의 붕괴 양상을 통해 청대(淸代)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성 뒤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면, 『토지』는 〈중심〉을 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들이 〈그 외부〉에서 모색하는 공적·사적 삶의 가능성을 묘화한 작품이라 하겠다.

한편, 『홍루몽』에서 패종시계, 회중시계, 안경 등과 같은 근대문물이 자주 나타나며, 진진국과 같은 서양의 국가, 외번 등의 변방의 국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바 여기에는 근대적인 공간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할 수 있다.²⁵⁾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피 엔드인, 결말을 제외하고 볼 때 주인공 가보옥, 그리고 가석춘, 유상련 등과 같은 인물들이 출가를 선택함으로써 초월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만하다. 『토지』에서 불교계 인물, 동학재건세력 등이 현실참여를 지향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바이다. 이들 인물들이 〈가부의 외부〉의 다른 어떤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너머의 〈초월적 공간〉을 지향하고 있음은 『홍루몽』보다 조금 뒤에 나온 『경화연』²⁶⁾과 비교해 보

25) 50회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한 부친 덕분에 세상에 대한 견문이 넓은 설보금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고적자” 중 열 곳을 뽑아 “열 가지 혼한 물건을 비유”하는 “회고시”(③, 256)를 지은 장면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26) 사회소설로 분류되는, 이여진(李汝珍, 1763?~1830?)의 『경화연(鏡花緣)』에서는 중

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10세 전후에 집안이 몰락하자 현실과 거리를 두고 은둔하여 『홍루몽』을 10여 년간 집필한, 작가 조설근의 개인적 삶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 듯하다.

IV. 대관원의 중의적 성격과 도덕적 파탄에 따른 가부의 몰락

1. 공명, 세속과 탈속의 부서지기 쉬운 경계

대관원은 탈속적 공간인가? 기존 논의에서도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단선적인 답을 내리지는 않지만, 대체로 풍월보감(風月寶鑑)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그 외부의 세계와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지는 곳이라는 데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대관원>이 <그 외부>와의 관계에서 ‘부서지기 쉬운 경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관원이 원비의 성친을 위한 별원으로서 만들어진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곳은 바로 공명과 부귀영화가 정점을 이루는 공간이라 할 만하다(17-18회). 이를 뒷받침하듯 원비의 붕어를 전후하여 대관원은 점차 폐쇄되고 만다(94-95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관원의 탈속적 성격을 거론하는 것은 그 부분적 특성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대관원을 전체로서 그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겠다.

대관원은 여러 전각들, 정자, 연못, 흐르는 물 등을 포함하며, 기존의 자

국 밖의 괴상한 나라들, 이상에 가까운 나라들 등의 입장에서 중국 사회의 여러 가지 폐풍들, 미신이나 전족(纏足) 또는 남존여비의 사상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수많은 대부분의 외국들이 중국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작자는 중국 사회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아무리 군자국이라 하더라도 중국과 동등한 문명을 지니지는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주인공 당오(唐敖)를 어디를 가나 성인의 나라 또는 중화 땅에서 온 사람이라 하여 극진한 환대를 받게 하고 있다. 김학주, 『[개정]중국문학사』, 앞의 책, p. 486.

연 풍광을 이용하면서도 일 년 여에 걸쳐 만들어진 대규모의 정원이다. 우선 여러 전각들이 등장하는 순서, 각 전각과 그 전각을 차지하는 인물의 성격 등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대관원이 세속과 탈속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함께 묶여서 전개되는 17회와 18회에서, 가정이 문객들 및 가보옥을 데리고 완성된 대관원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배치된 전각들과 정자, 그 밖의 풍광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때 소개되는 주요 전각들을 그 순서를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봉래의有鳳來儀’(①, 360) → 소상관瀟湘館(①, 394)
- 2) ‘행림제망杏帘在望’(①, 363) → 완갈산장浣葛山莊(①, 394) → 도향촌稻香村(①, 400)
- 3) ‘형지청분蘅芷清芬’(①, 371) → 형무원衡蕪苑(①, 394)
- 4) ‘홍향녹옥紅香綠玉’(①, 375) → 이홍원怡紅院(①, 394)²⁷⁾

임대옥과 가보옥이 각기 거주하게 되는 소상관과 이홍원은 이환과 설보차가 각기 거주하게 되는 도향촌 및 형무원을 사이에 두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세의 인연으로 맺어진 임대옥과 가보옥은 탈속적이거나(임대옥) 탈속을 지향하는 인물(가보옥)로서 시종일관 그려지는 바, 이들이 거주하는 두 전각의 사이에 가정 가계에 속하는 두 명의 며느리 이환과 설보차가 거주하게 될 전각이 놓여 있음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가보옥-임대옥 간의 전세 인연이 가보옥-설보차 간의 현세 인연에 자리를 내주는 형국이라 하겠다. 또한 임대옥이 요절하고 가보옥이 출가한 이후, 가란의 모친이기도 한 이환과 가보옥의 유복자를 가진 설보차가 가부의 뒤를 잇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러한 전각 배치를 통해 대관원에 탈속과 현세가 공존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관원의 각 전각을 차지하며 거주하게

27) →의 좌측은 17-18회에서 가정을 따라 나선 가보옥이 지은 각 전각의 이름이며, →우측은 추후 성친을 온 원비(가원춘)가 개입하여 고친 이름들이다. 이후 전각들은 →우측의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표 2〉 대관원의 전각 및 그곳에 거주하는 인물들의 성격

인물	전각	대관원의 탈속적 성격	대관원의 현세적 성격
가보옥	<u>이흥원</u>	전·현세의 인연. 의음. 反-입신출세. 인생의 근원적 허무·회자정리에 연연.	
화습인	이흥원		현실과의 조화로운 관계 추구. 모성적.
청문	이흥원		시시비비를 따지는 모난 성격 에서 비롯한 비극적인 죽음. 보복성 밀고에 의해 희생됨.
소흥	이흥원		이기적 이로움의 추구.
임대옥	<u>소상관</u>	전세의 인연. 배타적 사랑. 反-입신출세. 인생의 근원적 허무·회자정리에 초연.	
가석춘	요풍헌	녕국부에 대한 환멸. 현세의 결정에 따른 출가. 대관원도의 의미(풍경과 인물: 탈속).	
묘옥	농취암	육신의 허약함에 따른 현세 의 결정으로 출가함. 전세의 업보/현실세계 부조리의 회생 양.	
설보차	<u>형무원</u>		현세의 운명에 따른 결혼. 부 부유별의 유교이념에 충실. 현 실에 대한 순응과 타협.
사상운	형무원		결혼 후 남편의 단명함으로 불 행하게 됨.
진항릉	형무원		타고난 운명의 짐. 처첩갈등과 인과응보의 도. 유교로 인해 운명 사이클: 상-하.
이환	<u>도향촌</u>		유교이념에 충실: 금욕과 정절. 가란의 입신출세로 운명 사이

인물	전각	대관원의 탈속적 성격	대관원의 현세적 성격
			클: 하→상.
이문/ 이기	도향촌		이기는 진보옥과 결혼하여 현세적 공명을 추구하며 살게 됨.
가영춘	자룡주		순종적. 부친 가사의 세속적 타협에 따른 희생. 불행한 결혼으로 운명 사이클: 상→하
형수연	자룡주		가난. 설과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됨. 운명 사이클: 하→상
가탐춘	추상계		합리적 이로움의 추구. 리더의 자질. 초월성과 현실성의 조화.

될 인물들의 면모를 <표 2>를 통해 정리함²⁸⁾ 이어 몇몇 전각의 세부적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홍원>의 주인공 가보옥과 그곳에 거주하는 시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홍원>은 탈속성과 세속성이 공존하는 공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기적 이로움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시녀 소흥이 일찍이 서사의 전반부에서, 이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부류라 할 수 있는, 왕희봉의 거처로 옮겨진다는 사실은 <이홍원>이 가보옥이 지향하는 탈속성에 보다 근접하는 공간임을 나타내 준다. 화습인은 가보옥이 현세적 공간인 <가부>의 가정 및 왕부인과 화목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현세와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이홍원 내에서 공명을 배척하고 자매들 및 시녀들과의 깊은 정(情)의임에 얽매어 있는 가보옥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이홍원>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각 자체의 특성에 있다. 그 구조가 미로처럼 엮여 있다는 점, 전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28) 각 인물의 성격화 양상은 표로 정리한 바로 대신하며, 논의 맥락상 필요할 경우에만 언급하기로 한다.

거울이 있어 그와 같은 미로적 성격을 더하도록 한다는 점은, 가보옥이 꿈에서 태허환경을 수차례 경험함으로써 전세로부터 이어지는 진정한 <나>를 찾아 출가하게 되는 삶의 역정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할 수 있다. 가보옥과 생김새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추후 꿈을 통해 성격변화를 일으켜, 공명을 추구하는 유가적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진보옥의 존재는(93회), 본래적인 <나>를 찾아 탈속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가보옥과 대비되어 그의 형상을 부각하여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상관〉의 임대옥은 가보옥과 더불어, 태허환경 경환선녀가 주관하는 애정사건의 주인공으로서, 탈속성을 강하게 나타내 보인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㉔(23회)에서 그녀가 가보옥과 더불어 만드는 꽃무덤의 존재이다. 꽃잎들이 대관원 밖으로 흘러 내려가 아래쪽의 “더러운 물”(㉔, 81)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옥은 꽃 무덤에 꽃들을 묻는 바, 이는 그녀의 생애를 은유한다고 할 수 있다. 전생의 강주선초가 자신을 선녀로 만들어준 신영시사의 은혜를 갚기 위해 현세의 상사사건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임대옥은 현세에서 결혼할 ‘위기’에 처하지만 이를 피해 죽고 마는 운명대로 삶과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더러운 것과 섞이기 전에 꽃 무덤에 묻힌 꽃과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이러한 탈속성은 대관원 밖의 잡다한 공명의 자리에서도 견고한 경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²⁹⁾ 이른바 가보옥이 탈속지향적인 인물이라면, 임대옥은 탈속적인 인물로서 성격화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임대옥이 거주한 〈소상관〉 주변에 무성한 대나무와 이끼의 푸름 또한 그녀가 현세의 인연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40회에서 가모가 처음 〈소상관〉을 방문하였을 때, 푸르른 〈소상관〉의, 그녀 방 창문에 바른 역시 초록 빛깔인 망사가 바랜 것을 보고 〈은빛 섞인 분홍색〉의 ‘연연라(軟煙羅)’(㉔, 459)로 치장해 주도록 하는 장면은 이와 관련해서 볼 만하다.

29) 임대옥은 설보차와 화습인 등이 가보옥이 공명을 세우도록 이끄는 것과 달리, 가보옥에게 그와 같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85회에서 가정 이 낭중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동시에 임대옥의 생일을 축하하게 되는데, 이때 공연된 연극에서 임대옥의 탈속적인 운명을 읽을 수 있는 바, 여기에서도 임대옥이 현세적인 공명과 거리를 둔 인물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반면, 설보차의 〈형무원〉, 이환의 〈도향촌〉은 각기 현세 지향적 특성을 나타내 보인다. “화서(花叡)의 등라나루”에서 본 〈형무원〉의 “맑고 널찍한 대청”(②, 471)은 설보차의 넓은 도량을 나타낸다 할 수 있으며, 〈형무원〉에 우거진 갖가지 향초들의 존재는 지우고 싶은 냄새를 향기로 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적 미덕을 체현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설보차의 타협적인 삶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³⁰⁾ 초가집들로 이루어진 〈도향촌〉의 소박함은 청상의 과부로서 금욕하며 살아가며, 농부가 수확하듯이 아들 가란이 공명을 세우도록 잘 키워내는 이환의 삶과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가부의 자매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존재는 가담춘이다. 그녀는 가정과 첩 조이랑 사이에서 태어난 서녀로서 리더의 자질을 보이며 합리적 이로움을 추구하는 인물로 성격화된다. 가담춘은 ㉔(37회)에서 ‘해당시사모임’의 발기인으로서 활약하며, 첫 번째 시사모임을 주관한다. 가담춘은 공명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시사를 짓는 일을 함께 하였던 고인들의 삶을 본받는다는 취지의 시사 모임의 발기문격인 편지글을 가보옥에게 보내는데, 이를 통해 그녀가 현실성과 탈속성의 조화를 이룬 인물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가담춘은 ㉔(55회)에서 왕희봉이 유산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㉔(65-69)에서 이환과 더불어 집안 살림을 돌보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가 합리적 이로움을 추구하는 인물이란 점을 읽을 수 있다. 들어가는 데는 많고 나오는 데는 적은 가부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고, 전례대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전례대로 행하며, 개혁을 단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하는 면모를 보이는 가 하면, 넓은 대관원에서 경제적 이로움을 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내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가담춘의 면모는 그녀가 거주하는 〈추상재〉의 성격 과도 조화를 이룬다 할 수 있다. 〈추상재〉는 대관원 내에 있는 건물들 가운데 〈가부 외부〉의 거리와 가장 가깝게 자리하여 외부의 소음이 들리는 위치에 있는 바, 대관원 내에 거주하는 가부의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

30) 설보차는 유가에서 내세우는 여성의 미덕에 대해 순종적이며, 액땀을 위해 왕희봉이 낸 계략대로 신부 바꿔치기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가보옥과의 결혼을, 어머니인 설부인의 결정에 순종하는 입장에서, 수락한다는 점에서 타협적이라 할 수 있겠다.

생활을 무난하게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그녀의 전정과도 관련을 맺는다 할 수 있다. 또한 “기분 좋게 떠들썩한 분위기와 터놓고 지내는 것을 좋아하여”(②, 467) 세 칸짜리 집의 방들 사이에 칸막이를 하지 않은 〈추상재〉의 모습 또한 합리적이고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다 할 수 있는 가담춘의 성격화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각 전각의 면모는 그곳에 거주하는 인물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며, 대관원이 탈속성과 세속성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홍루몽』 전체 서사를 놓고 볼 때, 대관원의 성격은 그 외부의 〈가부〉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정의 출입, 왕희봉의 건강상태 등과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진다. 이른바 A(37회)에서 가정이 학정(學政)의 임무를 맡아 지방관으로 부임해 간 것과 때를 같이하여 시작된 ㉔(37회)의 해당화 시모임(海棠詩社)은 ㉔(55회)에서 유산으로 왕희봉의 건강이 악화되자, ㉔(58-64회)에서 시사모임의 회장적인 이환과 발기인인 가담춘이 집안일을 맡아 하면서부터 단절되었다가, ㉔(70회)에서 ‘도화시사’로 개명하여 시모임 재개를 시도하지만, C(71회)에서 가정이 지방관의 임무를 마치고 귀경하자 유야무야되고 만다. 이후 더 이상 시 모임은 열리지 않게 되며, ㉔(81회)에서 가정이 직접 가보옥을 가부의 서당 훈장인 가대유에게 데리고 가서 문장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이끌게 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시사를 짓는 시기로부터 문장을 짓는 시기로의 이행이라 할 수 있는바, 여기에 각각 反-공명 및 공명-추구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하겠다.

대관원에 거주하는 인물의 성격과 그들이 거주하는 전각의 양상들을 통해 대관원의 세계에 현실성과 탈속성이 공존함을 논한 것에 이어서, 〈대관원〉의 성격이 가정으로 대표되는 그 외부, 즉 〈가부〉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세시의 절기를 지키며 음풍농월하던 시사(詩詞)적인 데에서 팔고문의 형식으로 문장을 지어 공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대관원〉과 〈그 외부〉 간 공간적 경계란,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오히려 세속과 탈속의 경계가 견고하게 그어지는 것은, 가보옥·가석춘·유상련 등이 현실 공간 내에서 갖는 마음의 빗장임을 『홍루몽』의 서사는 보여주게 된다.

2. 음란과 정[의음], ‘정학(情學)’의 부서지기 쉬운 경계

공명에 반하느냐, 공명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탈속과 세속의 범주를 구분하고 <대관원>에 양자가 공존함을 논하였다. 또한 가정이 대표하는 <가부>의 공명추구가 <대관원 내>의 탈속성을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대관원>과 그 외부의 <가부> 간 경계가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살폈다. 이러한 측면을 『홍루몽』의 정학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도덕적 파탄에 따른 가부의 몰락을 논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텍스트 전반에 나타난 정, 의음, 음란, 정분 등에 대한 진술과, 여러 인물들이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방식들을 통해 『홍루몽』의 ‘정학’에 보다 귀납적으로 접근코자 한다.

1) ‘정학’의 인식론적인 개념 분화

가보옥이 속세의 모든 정분을 끊고 출가하기에 이르는 『홍루몽』의 전체 텍스트를 통해 볼 때, 이 작품의 ‘정학’은 情의 有함에서 無함까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홍루몽』은 음란과 정, 의음 등으로 분화된 개념들을 통해 ‘정학’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러한 개념 분화를 읽을 수 있는 회장은 5회로서, 여기에서는 꿈에서 태허환경을 경험하는 가보옥의 의식을 통해, 가보옥과 더불어 여러 여성인물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다. 경환선녀가 가보옥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음(淫)과 정(情)이 같은 부류에 묶이고, 이러한 음과 정을 추구하는 인물들과 대척되는 지점에 “천하고금의 제일가는 음인”(①, 141)이 존재하는 것으로 언명되어진다. 가보옥이 ‘음인’인 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깊은 사랑에 빠진 자”이기 때문이며 이를 ‘의음意淫’(①, 141-142)으로 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5회의 내용을 통해 음과 정이 음인, 의음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정학’의 개념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홍루몽』은 이처럼 분화된 개념들이 ‘인식론적으로’ 분명하게 그 경계를 확정짓기 어려운 것들임을 보여준다.

먼저, 음과 정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대사에 주목해 보자.

“그건 당신이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음욕을 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일을 해놓고도 스스로 풍월다정하다고 여기며 별로 문제 삼질 않죠. 그러나 사람들이 ‘정’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희로애락이 아직 피어나지 않은 때는 성(性)이며, 희로애락이 이미 피어나게 되면 그때는 정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나 나의 이 정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정이므로 마치 꽃봉오리와도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정이란 것은 이미 진정한 정이 될 수 없습니다.”(㉔, 246)

이는 116회에서, 태허환경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주관하는 경환선녀의, 동생인 가경(可卿)이 첩이 되거나 결혼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죽기를 결심한 원왕에게 들려주는 대사로써 ‘정’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희로애락이 아직 피어나지 않은 ‘성(性)’이 희로애락으로 이미 피어나는 ‘정’의 단계에 이르면 그것은 ‘이미 정이 아닌 것’, 즉 ‘음’이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정(情)과 음(淫)의 경계가 ‘인식론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정과 음의 관계는 통상적인 남녀의 에로스적 사랑을 통해 엿볼 수 있겠다. 실제로 『홍루몽』은 양자의 경계가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몇 개의 연애사건들을 통해 보여주는 바, 이는 본 절(IV.2.)의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살필 것이다.

한편, 5회에서 진술되는 경환선녀의 대사는 ‘의음’ 또한 그 개념을 말로 써, 즉 ‘인식론적으로’ 확정짓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³¹⁾ 그런데 이러한 의음에 대해서는, 이를 체현하고 있는 인물인 가보옥의 형상화 양상을 통해 몇 가지 개념적인 정리(定理)를 귀납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³²⁾ 가보옥이

31) “음은 음이라도 그 뜻은 각각 다르니라.(…) 그런데 너는 지금 천성적으로 깊은 사랑에 빠진 자로 우리는 이를 ‘의음意淫’이라고 한단다. 뜻이 넘친다는 이 ‘의음’이란 두 글자는 입으로는 전할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이며, 말로는 밝힐 수 없고 정신으로만 통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두 글자를 얻었다 함은 균중에서 진실로 좋은 벗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상의 길과는 어긋나고 엇갈리어 백방으로 비난받고 수없는 눈총을 받게 될 것이다.”(㉑, 141-142)

32) 최병규의 논문에서 유사한 시도를 한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는 ‘情’의 의미를 無私性과 無限性, 性靈性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끝으로 가보옥의 ‘意淫’을 ‘動心說’과 藝術家的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崔炳圭, 「紅樓夢賈寶玉情案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校 82學年度 博士學位論文(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함. 조미

자신의 단 하나의 마음을 준 사람이 임대옥임을 천명하지만, 『홍루몽』에서 그의 단심은 ‘유일성’의 측면에서 논할 수 없다. 그는 임대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현세의 인연으로 맺어지게 되는 설보차, 이홍원의 시녀인 화습인과 청문, 심지어는 진종(秦鐘)이나 장옥함(藏玉函)과 같은 남성인물들을 향한 지극한 마음의 경지를 드러내 보인다.³³⁾ 대상의 차이에 따라 그의 마음의 결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는 이러한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공통적인 마음의 경향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천성적인 ‘의음’인 가보옥이 갖는 ‘의음’에 대해 몇 가지 정리들을 세워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의음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특질 및 그들과의 관계의 양상을 정리해 보겠다.

〈표 3〉 가보옥과 여성(적)인물들 간의 관계 양상

비교점	임대옥	설보차	화습인	청문	진종/장옥함
영원성	○	○	○	기림	기림/인연
육체성	X	○	○	X(누명)	X
품류	○	○	X	X	○
관계의 성격(1)	받는 사랑.	현모양처형.	모성애적 사랑.		
관계의 성격(2)	가보옥에 대한 배타적 사랑	현세와의 타협적인 관계 모색	현세와의 조화로운 관계 추구		

가보옥은 〈표 3〉에서 정리한 인물들 모두에게 지극한 마음을 주는 바, 이들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몇 가지 사항을 『홍루몽』의 정확에서 핵심을 이룬다 할 수 있는 ‘의음’의 몇 가지 개념으로 더해볼 수 있겠다. 첫째, 가보옥은 이들과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기를 의지적으로 추구한다. 그는 전세의 인연으로 맺어진 임대옥에게뿐만 아니라, 시녀 화습인에게도 죽음 이후 재로 흠날리게 되어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지극한 마음을 바칠 것을 맹세하

원, 앞의 논문, p.21).

33) 진종과 장옥함은 그 외모에서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장옥함은 연극배우로서 여자역인 소단(小旦)역을 맡는 인물이다.

곤 한다. 상대로부터 ‘독한 말’로 규정되는 이러한 발언은 그가 마음을 준 상대와 회자정리의 순리를 거스르면서까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하겠다. 이외에도 임대옥과의 선문답을 통해 설보차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는 부분, 음란함의 누명을 쓰고 죽은 청문이 부용꽃으로 환생하였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를 기리는 부분 등을 통해서도 가보옥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만남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면모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임대옥의 죽음에 직면하여 그녀가 선녀가 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꿈에서나마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애쓰는 가보옥의 시도는 관계의 영원성을 향한 마음의 정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가보옥의 의음은 ‘정/음’보다 그 함의가 넓다 할 수 있다. <표 3>에서 드러나듯이, 육체성의 문제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개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³⁴⁾ 따라서, 그의 의음은 성별을 초월하여서도 나타남을 엿볼 수 있다. 가용의 전처인 진가경의 동생 진종과 가보옥 간의 애뜻한 만남과 사별, 첫 만남에서 서로의 땀수건을 정표로 주고받은 장옥함과의 인연은 설반 등이 행하는 남색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그려진다. 서당에서 진종과의 관계는 남색의 혐의를 받지만, 실제로 진종은 가보옥에게 있어서 그가 죽은 이후에도 지극한 정성으로 제를 지내고 기릴 만큼의 진정한 마음을 바치는 대상으로 존재한다. 장옥함과 가보옥의 인연은 가보옥이 출가한 이후 가보옥에게 모성애적 사랑을 바친 화습인과 장옥함의 현세에서의 남녀의 인연으로 새롭게 연장되는 바, 이를 통해서 가보옥이 장옥함에게도 육체성과는 무관하게 진정성 있는 지극한 마음을 주었음을 엿볼 수 있다.³⁵⁾

34) 가보옥은 전세의 인연으로 맺어진 임대옥에게는 없는 육체적인 매력을 설보차에게서 발견하지만, 이러한 육체성이 임대옥을 향한 가보옥의 지극한 마음의 곁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제28회, 장옥함의 붉은 수건).

35) 한편, ㉔(58회)에서 가보옥은, 같은 여자 연극배우로서 부부역할을 하던 우관(藕官)과 적관(荳官)이 “진짜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적관이 돌연 죽자” 크게 슬퍼하던 우관은 “훗날 애관이 들어와 그 자리를 메워 주었는데 이번엔 그 애도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살피준다는 사연(③, 464)에 크게 공감하면서 우관에게 죽은 적관을 애도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가보옥과 이들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질은 그것이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전세의 인연으로 엮인 임대옥의 가보옥을 향한 사랑이 배타적인 것과 달리—이는 통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양상이라 하겠다—, 가보옥의 의음은 다수의 인물들을 향해 열린 마음의 정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의음이 본질적으로 육체성을 초월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하겠다. 가보옥은 ㉔(36회)에서와 같이, 대관원 내에서 연극배우인 영관과 가부의 인물인 가장 간의 사랑을 보고 배타적인 남녀 간 사랑을 깨닫기도 하는데, 이는 그의 의음이 개방적인 것임을 반증한다 하겠다. 『홍루몽』의 전체 서사를 통해, 가보옥은 그가 마지막으로 태허환경을 꿈속에서 체험하고 120회에서 세속의 모든 정분에서 놓여나기 전까지, 죽음 이후까지의 관계의 영속성을 추구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향한 개방적 의음의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인물과의 관계맺음의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가보옥의 의음으로 묶일 수 있는바, 그의 의음은 그 각각의 개별성에 상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정학’의 부서지기 쉬운 경계: 인식론적인 측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의음’이 ‘음란’과의 관계에서 인식론적으로 그 경계가 부서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부>의 가정과 왕부인은 풍기문란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는 바, 이들에 의해 가보옥의 의음은 음란으로 오인되곤 한다. ㉔(33회)에서 가정의 서자인 가환이 가보옥과 장옥함의 관계를 가정에게 그릇되게 밀고함으로써, 이들 간 관계의 성격을 남색으로 단정한 가정은 가보옥을 흑독하게 매질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고받은 땀수건의 존재는 단순한 정표일 뿐 음란한 것(남색)과는 무관한 것임을 가보옥-장옥함-화습인의 세 사람 간 관계를 통해 살필 수 있다. 화습인이 자신이 매어 준 땀수건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뀐 것을 알고 추궁하자, 가보옥은 쉽사리 장옥함과 바꾼 땀수건을 화습인에게 건네고 자신은 다른 것을 갖는

다. 이를 통해, 가보옥-장옥함의 손수건 교환이 『홍루몽』에서 자주 나타나곤 하는 남녀 간의 정표 주고받기와 그 성격이 다른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28회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땀수건이, 결국 마지막 회에서 화승인과 장옥함을 부부의 인연으로 묶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땀수건을 근거로 가보옥에게 남색의 혐의를 씌운 가정의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시녀들 가운데 가장 외모가 빼어난 청문은 화를 잘 내고 입바른 말을 잘 하는 성격이기에 대관원의 다른 온화한 성격의 시녀들과는 차별화되는 면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그녀에게 앙심을 품은 왕선보택의 모함을 받은 청문은 ②(77-78회)에서 가보옥에게 음란하게 대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대관원에서 쫓겨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청문이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가보옥은 청문의 누추한 거처를 찾는데, 여기에서 청문이 가보옥과 속바지를 바꾸어 입는 장면이 주목된다. 청문은 가보옥과 “사사로운 정”을 나눈 적이 없음에도 누명을 쓰고 대관원에서 쫓겨난 마당에, “헛된 이름만 남기게 되었으니”, 자신으로서도 가릴 것이 없다는 생각에 가보옥과 속바지를 바꾸어 입은 것이다(④, 478-479). 실제로, 청문은 대관원에서 속옷 바람으로 가보옥 및 다른 시녀들과 장난을 치고, 걸옷을 걸치지 않고 밖에 나가 추위에 언 청문의 몸을 가보옥이 그의 침상에서 녹여주는 등 가보옥과 허물없는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청문으로 하여금 음란의 누명을 쓰게 한 이러한 행태들이 육체성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었음을 죽음 직전의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 장면을 살피는 초점화자³⁶⁾

36) 『홍루몽』에서 초점화자의 성격은 그가 바라보는 세계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남녀 간의 애정지사를 바라보는 초점화자들(등고랑, 가보옥, 원앙 등)의 성격이 그 애정지사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한다.

한편, 현세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보옥은 초점화자로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105회에서 가부의 인물들이 탄핵을 받고 가산을 몰수당하는 과정에서 가보옥은 중문 인쪽의 가모의 처소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든 장면들은 가련, 설과, 형부인 등의 현세적인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제시된다. / 한혜경은 초점화의 양상을 고정적 초점방식, 가변적 초점방식, 방관자적 초점방식, 복수 초점방식으로 대별, 초점화자에 의한 서

가 바람둥이로 이름이 난 청문의 고종사촌 올케 등고랑이라는 점은 주목되는 바이다. 다반사로 음란의 죄를 범하는 등고랑이 이 장면을 보고 이들의 관계가 육체성과 무관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어서 가보옥을 유혹하고 있음은 이 글의 논점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전적으로 음란한 등고랑의 눈에 비친 이들의 관계는 음란한 것이 아니기에, 음란의 죄로 청문을 벌한 왕부인의 판단은 ‘인식론적’인 오류에 불과한 것임을 이 장면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과 음의 경계 또한 ‘인식론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대관원 내 인물들의 연애사건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㉔(36회)에서 전개되는 녀국부의 현손인 가장(賈鰲)과 그가 이끄는 연극단원의 배우인 영관 간의 사랑과 ㉕(71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영춘의 시녀인 사기와 그녀의 고종사촌인 반우안 간의 밀회를 비교함으로써 이를 밝힐 수 있다. 우선, ㉔과 ㉕의 연애사건이 각각 가보옥과 원앙을 초점화자로 하여 전개됨에 주목해 보자. 가보옥은 30회에서 장미꽃 시렁 아래에서 흐느끼며 ‘鰲’자를 수없이 쓰는 연극 배우 중의 한 사람을 훑쳐보는데, 추후 36회에서 그녀가 연극단원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영관(齡官)임을 알게 됨과 아울러 그녀와 가장이 절절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 부분에서 ‘의음’의 ‘음인’인 가보옥이 바라보는 이들의 사랑은 음란함과는 거리를 둔, 정(情)으로서 묘사된다.³⁷⁾ 한편, ㉕의 사건은 가사의 첩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 깨끗하게 죽을 것을 맹세한 원앙을 초점화자로 하여 전개되는 데, 그것은 풍기 문란한 음행으로서 묘사된다. 육체성의 무화를 특질로 하는

술에 서술자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으로써 초점과 서술 간의 불일치가 이루어지는 양상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혜경, 『『홍루몽』의 서사구조에 대한 고찰: 초점화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32, 2003. pp.245-271.

- 37) 이 사건을 통해, ‘의음’의 개방성을 드러내보이던 가보옥은 ‘배타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사랑’에 눈뜨게 된다. 여기에서 ‘개방적 의음’이 ‘남녀 간의 배타적 사랑’보다 포괄적인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인원 (습인에게)] “어젯밤에 나 죽으면 너희 눈물로 장사 지내 달라고 한 말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구. 나 같은 놈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독차지할 수는 없어. 앞으로 각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로 장사지낼 수밖에 없을 거야.”(②, 376)

‘의음’의 인간 가보옥이 바라보는 남녀 간의 배타적 사랑이 ‘정’에 근접한 것이라면, 의지적으로 육체성을 거부하는 원앙이 바라보는 남녀의 만남은 ‘음’의 편에 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겠다. 결국, 통념적으로는 육체성을 매개로 음란함을 규정하지만, 위의 사건들은 양자의 경계가 ‘인식론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다.³⁸⁾ 초점화자의 시선에 따라, 남녀 간의 애정지사가 정 혹은 음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3) ‘정학’의 부서지기 쉬운 경계: 공간기호학적 측면

마지막으로, 정학에 내포된 개념들 간 경계가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공간기호학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논점이기도 한 바, <대관원>의 성격변화와 관련을 맺는다. IV.1절에서 시사의 시기에서 문장의 시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대관원>의 성격변화를 논한 바 있거니와, 여기에서는 <대관원>의 공간성이 육체성이 개재하지 않은 상태의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정’과 육체성의 무화를 특질로 하는 ‘의음’으로부터, ‘음란’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가부의 몰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덕적인 파탄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서사단위를 이룬다.

정학과 관련한 <대관원>의 성격 변화는 <대관원>과 그 외부의 <가부> 간의 공간적인 경계가 부서지기 쉽다는 사실과 관련을 맺는다. 이는 앞에서 살핀, 시사에서 문장의 시기로의 이행이 <가부>의 가정이 공명에 대한 가부장권을 발휘한 결과 그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㉔(68-69회)의 우이저 자살 사건은 정학과 관련한 <대관원>의 성격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점 역할을 하는데, 이는 대관원 밖 <가부>의 도덕적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녕국부의 가부장적의 인물인 가정

38) 애정지사가 발각된 이후, 도망 간 반우안과 <대관원>에서 쫓겨난 사기는 재회하는데, 92회. 열녀전 가르친 보옥)에서 사기는 반우안을 향한 일편단심을 맹세하며 자결하고, 반우안 또한 사기의 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자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앞에서 음란함으로 규정된 동일한 애정지사가 여기에서는 회장의 재목이 시사하듯 남녀 간 ‘정절’로서 드러나는 바, 이 부분 또한 음과 정 의 경계가 인식론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논한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다.

은 일찍이 신선이 되기 위해 녕국부를 떠나는데, 63회에서 그는 도를 닦던 현진관(玄眞觀)에서 죽음을 맞이 한다. 이에 녕국부는 막강한 가부장권이 부재한 가운데, 3세대 인물인 가진이 그의 아들 가용과 함께 녕국부를 이끄는 데, 도박과 남색, 불륜, 축첩, 오입 등을 일삼는 그들의 도덕적 부패상은 봉건시대 상류층 자제들의 타락상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일찍이 논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㉔은 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부 몰락과정에서 그 결정타 역할을 하는 ㉔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다. 일찍부터 이복 처제이자 이모뻘인 우이저, 우삼저 자매와 불륜행각을 벌인 바 있던 가진과 가용은 가정의 장례가 진행 중인 때, 우이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련이 우이저와 새살림을 차리도록 비밀리에 일을 꾸민다. 이 일은 결국 왕희봉에게 발각이 되고, 왕희봉은 투기하지 않는 현숙한 아내의 탈을 쓰고 우이저를 <대관원>으로 옮긴 뒤 남의 손으로 핍박하여 결국 우이저가 자결하도록 이끈 것이다. 우이저 자신은 음행하였던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핍박을 받아 가련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공간기호학적 관점에서 이 일은, <가부>의 남성들에 맞서 유가적 여인의 현숙함이란 위선을 행하는 왕희봉을 통해, <가부>의 음란함이 <대관원의 내부>로까지 그 파장을 미쳐 결국 파국에 이른 최초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㉔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대관원>에서 전개된 남녀애정지사로는 ㉔, ㉔의 ‘음’으로 이행하기 전의 ‘정’을 보여주는 사건과, ㉔, ㉔의 가보옥의 ‘의음’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사건들이 전개된 바 있다.³⁹⁾ ㉔ 이후 발생하는 ㉔, ㉔, ㉔, ㉔의 사건을 살필 때, ㉔이 <대관원>의 정학적 성격이 음란으로 이행해 가는데 있어서 그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은 앞에서 살핀 바 있듯이 육체성을 거부하는 원앙을 조점화자로 하여 전개된 서사로서 풍기문란의 죄를 범한 음행으로서 서술되고 있다. ㉔은 ㉔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보도록 하는 사건으로서, <대관원> 내에서 남녀의 음행을 묘

39) 26~27회에서 가부와 친척 간인 가운과, 정분이 난 소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소흥은 이기적 이로움을 추구하는 세속적 인물로서 일찍이 27~28회에서 왕희봉의 시녀가 되어 <대관원>을 나가기 때문에 <대관원> 내 정학관련서사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하여 수놓은 수춘낭(繡春囊)이 발견됨으로써 영국부의 안주인인 왕부인이 풍기문란의 죄를 엄히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여 대관원을 기습 수색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가영춘에게는 손소조와의 혼담이 오가게 되며(①), 대관원 수색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직면하여 설보차는 〈형무원〉을 비우고 설부인이 기거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②). 『홍루몽』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전후관계를 고려할 때, 그 연관성을 인정하게 되는 ㉮과 ㉡의 사건은 〈대관원〉의 인물과 〈그 외부〉 인물 간의 음행이 〈대관원〉 밖 〈가부〉의 〈대관원〉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도록 한 결과, 〈대관원〉의 정확적 성격이 이른바 정과 의음에서 음란으로 이행해 가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음’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결혼관련서사가 본격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은 ㉡의 여파로 가속화된 사건으로서, 살핀 바 있듯이 의음과 음란 간 인식론적 오류를 보여줌과 아울러, 하얀색 해당화 화분의 암시를 통해 〈대관원〉의 세계가 끝을 맺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가보옥은 청문이 음란의 누명을 쓰던 그해 봄 화분의 해당화가 절반은 말라 죽은 것을 들어 청문의 죽음을 예견하는데, 이 사건은 94회에서 겨울에 핀 해당화가 불길함을 나타나는 징후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연관된다 할 수 있다. 그 꽃을 감상하다 가보옥이 통령보옥을 잃음과 동시에 건강을 잃게 되자 〈대관원〉을 떠나고, 원비가 붕어함으로써 원비의 성친을 위해 만들어진 〈대관원〉의 세계는 폐쇄되어 가는데, 이는 가부의 부귀영화가 급속한 쇠함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징표임과 아울러 ‘음(육체성)’이 정당화되는 결혼관련서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됨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와 같은 서사전개과정에서 ㉡의 사건은 〈대관원〉이 정화의 측면에서 성격변화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가부의

40) 수색의 결과 가석춘의 시녀 입화가 가진의 하인으로 있는 그녀의 오라버니로부터 받은 물건들인 금덩이, 은덩이와 남자의 용품들이 발견된다. 이는 입화의 오라버니가 가진으로부터 받은 상품들인 것으로 판명이 나는데, 이 일을 계기로 가석춘은 영국부와 인연을 끊고, 출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가영춘의 시녀인 사기에게서 그녀와 반우안 간의 정분을 입증해 주는 물건들이 발견된다.

낮은 항렬의 인물인 가근이 여승 및 여도사들이 생활하는 수월암에서 음행한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가정의 지시를 받은 가련이 수월암의 여성인물들을 <대관원>에 억류하는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대관원의 서사는 실질적으로 끝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관원>의 본령이 음란함과 대척되는 정과 의음사랑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양자의 경계가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⁴¹⁾

가보옥이 출가를 결정하고 출가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세속성/탈속성의 경계, 정/음/의음의 경계가 <대관원>과 그 밖의 <가부> 간의 그것처럼 부서지기 쉬운 실재하는 공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전환’을 통해 견고한 경계를 쌓게 됨을 보여준다(<그림 1> 참조). 97회에서 설보차와 가정을 이룬 가보옥은 116회에서 태허환경을 다시 꿈속에서 체험하고 자신과 자매들의 운명을 알게 된 이후 출가를 결심하는데, ‘의음’의 특질을 가진 ‘음인’이었던 가보옥의 존재는, 출가를 통해 전세로부터 정해진 본래적인 자아를 회복함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정분으로부터 놓여나게 된다.⁴²⁾ 이를 통해 『홍루몽』의 정학이 情의 有함에서 無함까지를 아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홍루몽』의 정학은 도덕적 파탄에 의한 가부의 몰락과정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홍루몽』의 서사단위들 내에서, 공명의 득실, 경제적 파산 과정과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도덕적 파탄 또

41) 스스로를 ‘함외인(檻外人)’이라 칭한 대발(帶髮) 여승 묘옥(妙玉)이 음심을 품은 도적에게 납치를 당한 ②의 사건은 <대관원>에 남은 탈속성과 청정함이 마지막으로 침해를 받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뒤이어 ⑬에서 출가한 가석춘은 가진의 결정으로 120회에서 농취암에서 머물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녀의 수행생활이 종적을 감춘 가보옥의 경우와 달리 가부와 전혀 무관할 수 없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를 통해, 여전히 <대관원>이 그 외부의 <가부>와의 관계에서 부서지기 쉬운 경계에 의해 새롭게 구별되는 세계가 됨을 알 수 있다.

42) 마지막 회에서 가우촌이 진사은에게 가부의 규수들이 원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범하게 일생을 마친 것에 대해 묻자, 진사은은 그들이 모두 정천열해(情天孽海)에서 온 애정에 얽매인 자들이기에 그와 같은 종말을 맺은 것으로 답하면서, “음(淫)이란 것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정(情)’이란 것에도 몰들어서는 안 된다.”(⑥, 478-479)라고 말하는 바, 이는 ‘의음’의 ‘음인’인 가보옥이 출가함으로써 情의 無함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사이다.

한 그 전개가 가속화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학의 측면에서 <대관원>이 성격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살펴보았는바, <대관원>의 성격이 <그 외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정’/‘의음’에서 ‘음란’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가부>의 도덕적 파탄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하겠다. 더불어서, <대관원> 밖의 <가부>와 그 너머 <가부의 외부>에서 가부 인물들에 의해 자행하는 음행과 방종한 행위들이 공명의 부침과 경제적 파산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가부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핀 바 있다.⁴³⁾

3. 박경리 문학(『토지』를 중심으로)과의 비교 논의

여기에서의 비교 논의는 박경리 문학 전반과 관련을 맺는다. 대표작 『토지』를 비롯한 박경리 문학에서 ‘감정’의 문제는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설근의 『홍루몽』 또한 그 정학(情學)을 운위(云謂)할 만큼, 남녀 간의 사랑에서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섬세한 감정의 결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두 작품에서 모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 ‘감정’의 문제를 그 자체로서, 그리고 ‘공간’과의 관련선상에서 핵심적 사항 위주로 비교 논의코자 한다.

필자는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감정서사들에 대해 논한 바 있다.⁴⁴⁾ 그 가운데 사랑서시는 박경리 문학의 주축을 이룬다 할 수 있는데, 그녀의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유일한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2) 무차별적인 에로티시즘의 관계를 맺는 사랑, (3) 새로운 가치로의 지양을 이루는 사랑이 그것이다.⁴⁵⁾ 이러한 사랑의

43) 영국부의 가진과 가용, 영국부의 가련, 설부인의 아들인 설반 등이 <가부 내>에서 혹은 <가부의 외부>에서 행하는 바가 대부분 남색을 포함한 음행과 도박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44) 김은경,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의 경제」, 앞의 논문; _____, 「박경리 문학 연구: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_____, 「사랑서사와 박경리 문학」, 앞의 논문; _____, 『박경리 문학 연구: ‘움직임’과 ‘멈춤’의 상상력』, 앞의 책.

양상들은 본 절에서 살핀 『홍루몽』의 정학과 뚜렷한 변별점을 보이기에 두 작품을 상호 조명할 수 있는 바라 하겠다.

우선, 박경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사랑서사의 문학사회학적 함의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앞에서 정리한 (1), (2), (3)의 사랑 양태들은 상호적인 관계의 지형 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들을 갖는다. (1)은 그 대상에 있어서 뿐만 다른 가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타적인, 그 결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랑이다. 이러한 (1)은 에로티시즘적 욕망의 무차별성을 잘 보여주는 (2)와 비교할 때, 일견 유일한 대상을 향한 사랑의 절박함에서 에로스적 숭고함을 엿볼 수 있다. (1)과 (2)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바는, (2)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교환가치에 비견된다는 점이다. 제반 가치들이 화폐의 교환가치에 의해 무차별화되는 자본주의의 병폐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의 추상성에서 비롯하는 무차별적인 에로티스즘은 상동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읽을 수 있다 하겠다. (3)은 새로운 가치들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지평을 확대하는 인물형상을 통해 보여주는 바, 이는 (1)의 에로스에 사로잡힌 편협한 인물 형상과 대비됨과 아울러, (2)의 욕망을 좇아 무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인물형상과도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박경리가 좌절된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긍정적 가치를 찾아 지향해 가는 (3)의 인물형상을 통해 현실 참여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존의 논문들을 통해 살핀 바 있다.

이러한 사랑서사는 박경리 문학의 주축을 이룬다 할 수 있는데, 이를 『홍루몽』의 ‘정학’과 비교해 보자. 우선, 가보옥에게서 살필 수 있는 ‘의음’을 (1)과 비교할 때, ‘의음’의 개방성이 (1)의 배타성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에서 논한 바 있듯이 가보옥의 ‘의음’은 남녀 간의 배타적 사랑을 포괄하는 것이되, 유일한 대상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다. 여러 대상들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개방적인 감정 양태이다. 이는 ‘의음’의 두 번째 특

45) 박경리 문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토지』를 통해, 이러한 사랑의 양태들을 고루 살필 수 있다. (1)과 관련하여 이용-공월선의 사랑, (2)와 관련하여 홍성숙-조용하의 관계에서 홍성숙의 경우, (3)과 관련하여 김환-별당아씨, 오가다 지로-유인실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거론해 볼 수 있다.

질로서 파악한 ‘육체성의 무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미 논한 바 있다. ‘의음’에서 나타나는 ‘육체성의 무화’는 (2)의 육체성의 무차별성 과도 대비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의음’이 단순한 ‘정’과 ‘음’, 그리고 ‘음란’과의 관계에서 인식론적으로든, 실재적으로든 그 경계가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도 박경리 문학과의 변별점을 찾을 수 있는 바, 박경리 문학을 통해 (1), (2), (3) 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그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홍루몽』의 ‘정학’에서는 정, 음란, 의음으로의 개념 분화를 이루지만, 이들 간의 경계가 부서지기 쉽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정리한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사랑서사의 문학사회학적 의미는 다양한 사랑 양태들을 수평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구명된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홍루몽』은 ‘정학’의 개념들 간 경계가 부서지기 쉽다는 점을 문제 삼음과 동시에, 오히려 情의 有함과 無함간의 경계 짓기로 비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는 ‘정학’의 범위가 情의 有함에서 無함까지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학’의 양상을 통해 『홍루몽』이 당대 현실을 비판함과 아울러 초월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른바, 『홍루몽』은 가보옥을 그 존재 가능성이 희박한 ‘의음’의 ‘음인’으로서 성격화하여 작품의 중심에 두고, ‘음’이 ‘의음’의 개념 범주를 교란하는 단계에서부터 ‘음란’으로써 그 극단에 이르는 단계까지를 보여줌으로써 청대 봉건사회 상류층의 도덕적인 부패상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겠다.⁴⁶⁾ 그런데 조설근은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출가하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음으로써 情의 有함의 대극으로써 情의 無함을 상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비판적 현실인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불가의 초월적 비전이 제시되고 있음을 논할 수 있겠다. 이는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랑서사가 에로스의 범주에서 벗어나 현실 참여적 지평으로까지 확대된 박경리 문학과 대비되는 바이다. 이 부분에서도 은둔적이고 고답적이었던 조설근의 자전적 삶

46) 조설근은 『홍루몽』을 통해 ‘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가부〉의 인물들에 의해 ‘음’이 극대화되어 ‘음란’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통해 당대의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관련서사들을 통해 나타나듯이, ‘음’이 결혼을 통해 제도적으로 용인됨을 적시하고 있다.

이 그의 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⁴⁷⁾

남녀 간 사랑을 중심으로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감정서사를 비교 논의해 보았는바, 이러한 감정서사가 작품의 시공간성과의 관련 내에서도 뚜렷한 변별점을 보이기에 이와 관련한 핵심적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⁴⁸⁾ 이른바 시공간성의 범역이 넓은 『토지』에서는 ‘감정의 질적 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반면, (시)공간성의 범역이 협소한 『홍루몽』에서는 ‘감정의 양적 측면’과 관련한 논의점을 찾아볼 수 있다. 스토리 시간이 근 반세기에 이르며, 한반도와 만주, 일본, 러시아까지를 아우르는 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토지』에서는 인물의 감정전화가 잘 드러난다. 필자는 이전의 논문들을 통해, 『토지』에서 사랑의 감정 또한 모성애, 부성애, 민족애 등으로 질적 전화를 이룸을 살핀 바 있다.

『홍루몽』은 대부분의 서사가 대관원을 포함한 <가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는 바, 이는 『홍루몽』의 특징적인 측면임과 아울러 『토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연대가 명시되지 않은 『홍루몽』의 경우, 그 스토리시간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10년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⁴⁹⁾ 분명하지 않은 스토리시간은

47) 물론, 이러한 특질은 우리의 문학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 고전소설의 한 측면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대표적으로 조선의 숙종 때인 17세기 후반에 김만중이 쓴 『구운몽』과 비교할 볼 때, 창작연대가 보다 후대인 『홍루몽』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48) 필자는 작품의 시공간성이 감정양태(작품에 내재한 감정의 양적·질적 측면)와 상관관계를 맺음을 국내외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김은경, 『박경리 문학 연구: ‘움직임’과 ‘멈춤’의 상상력』, 앞의 책. / 이와 관련해서는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49) 『홍루몽』에서는 시간착오가 자주 나타나며, 전반부에서는 절기마다 행하는 세시 풍속들이 자세하게 묘사되므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표식이 잘 드러나지 않기에 전체 스토리시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새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점, 가보옥이 칠팔세 되던 해로부터 서사가 시작하여 그가 설보차와 결혼하여 아이를 잉태토록 한 이후 출가하는 지점에서 서사가 마감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토리시간이 대략 10년 안팎일 것으로 추정해 본다. 이처럼 『홍루몽』에서

제외하고 공간성만을 놓고 볼 때, 『홍루몽』의 서사가 〈가부〉를 중심으로 협소한 공간성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 이외, 〈태허환경〉이라는 초월적 공간이 가보옥의 꿈을 통해 작품의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5회에서 처음 〈태허환경〉을 몽중에 체험한 바 있는 가보옥은 116회에서 다시 〈태허환경〉에 대한 꿈을 꿈으로써, 선계의 인연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가부〉의 가보옥은 세상에 드물게 존재하는 타고난 ‘음인’으로서, 임대옥을 비롯한 여러 여성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의음’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전세의 인연으로 맺어진 임대옥에 대한 지극한 마음은, 가보옥이 임대옥을 배우자로 고려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가보옥이 설보차, 습인, 청문, 진중 등에게 보내는 지극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가보옥은 116회에서 〈태허환경〉을 통해 선계 인연을 깨닫기 전까지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의음의 감정을 양적·질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으로 형상화된다.

본고는 필자가 발표한 기존의 논의에 기초하여, 『홍루몽』에서 가보옥의 인물형상을 통해 영원성을 한 특질로 하는 ‘의음’의 감정양태가 고조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체현될 수 있음이 이 작품의 협소한 공간성과 유관한 것으로 본다.⁵⁰⁾ 출사하여 공명을 떨치는 유가적 삶을 배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 보이곤 하는 가보옥은, 전체 120회 중 116회까지 재자가인의 성격을 띤 여러 여성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타고난 ‘의음’을 실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성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가보옥관련서사가 감정서사로서 분명한 선을 그으며 작품의 중심에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서, 〈대관원〉과 〈가부〉에 제한된 공간성이 주요하게 작용한

스토리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반복적인 일상성을 작품의 주요 제재로 한 점, 서술자의 시간의식이 투철하지 않은 점과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 50) 이러한 주장은, 국내외의 여러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공간성과 감정양태의 관련성을 증명한 필자의 기존 논문을 기초로 하여 제기된 것이다. 김은경, 「박경리의 『토지』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비교 고찰—시공간성(Хронотош)과 ‘감정경제’에 주목하여」, 앞의 책; _____, 「소설에 나타난 ‘감정경제’ 정식화(定式化)를 위한 시론(試論)」, 앞의 책.

것으로 본다. 공간의 확장은 곧 새로운 사건 및 갈등 형성과 조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보옥관련서사는 공명을 추구하고 낭비와 방종이 극도에 달하여 경제적 파산과 도덕적 파탄을 맞이한 〈가부〉의 영향력 하에서, 가보옥이 자신의 타고난 ‘의음’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갈등 축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바, 이 점과 관련하여 새로운 갈등 축의 생성은 공간의 확장을 수반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보옥관련서사가 〈가부〉내 인물 이외의 인물들과 여타의, 특별히 공격적인 갈등 축을 형성하지 않고 감정서사로서의 성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관원〉을 중심으로 한 〈가부〉라는 협소한 공간성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성이 아니라면, 가보옥을 대단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관원〉 및 〈가부〉 내 여러 인물들을 향한 지극한 마음의 경지를 양적·질적으로 유지하는 인물형상으로서 구현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존의 논문을 통해서도 주장한바 있듯이 공간의 확장을 수반하게 마련인 새로운 사건과 갈등 축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토지』에서 인물의 감정의 질적 전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홍루몽』에서는 가보옥이 〈태허환경〉이라는 초월적 공간을 몽중에 체험함으로써, 급격하게 情의 有함으로부터 情의 無함 상태로 나아가는 바, 본고는 그 〈태허환경〉의 존재 의미에 대해 주목한다. 가보옥이 자신의 본원적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현실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공명을 추구할 것을 종용하는 부친 가정, ‘의음’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갑작스런 죽음, 속임수에 의한 반강제적 결혼 등으로 인해 갈등상황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음’하는 삶의 방식을 놓지 않는 것이 가보옥관련서사의 핵심임을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상황으로부터의 탈피가 초월적 공간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전소설의 한 패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전에, 시공간성과 감정경제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논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기존 논문들을 통해 『토지』의 인물들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감정 전화가 제3의 공간을 경유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홍루몽』에서는 가보옥을 통해 온전한 有에서 전적인

無로 나아가는 급격한 감정상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에 비추어 고려해 볼 만하다. 『홍루몽』은 이러한 감정상태의 급격한 전환과정에 <태허환경>이라는 초월적 시공간성이 개재도록 하고 있는 바, 가보옥이 자신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운명을 ‘한밤의 꿈을 통해’ 알아간다는 그 ‘초월성’은 한편으로 현대소설의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의 개연성을 훼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감정상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해 그 필진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보옥이 ‘의음’의 ‘음인’에서 불도자로 ‘급격하게’ 재탄생하는 데 있어서, 그가 <태허환경>이라는 다층적 시공간성에서 ‘자신을 비롯한 주요 여성인물들의 전세와 현세의 삶을 짧은 순간에 체험하게 된 과정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보옥의 ‘현세에서의 급격한 감정전환’을 살필 때, 이 작품의 초월성이 오히려 감정서사의 필진성을 낳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보옥의 현세에서의 하룻밤>과 <가보옥이 태허환경에서 경험한 전세와 현세의 삶>을 동위에 놓고 볼 때에, 가보옥에게서 ‘급격하게 일어난 감정전환’의 필연성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⁵¹⁾ 본고는 고조된 상태로 유지되던 감정의 급격한 소멸과 다층적 시공간성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여기에서 『홍루몽』의 감정경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른바, 『홍루몽』은 『토지』와는 다른, 이른바 고전소설의 초월성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감정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V. 가문의 내부인 혹은 외부인과의 결혼의 문제와 가부의 몰락

앞에서 <대관원>의 세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격변화를 이룸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폐쇄됨을 논의하였다. 특히, 음란함의 투입으로 정과 의음에서 음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그 음을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결혼관련서사로 이어

51) 필자는 다음의 논문에서, 김만중의 「구운몽」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김은경, 「소설에 나타난 ‘감정경제’ 정식화(定式化)를 위한 시론(試論)」, 앞의 책.

지는 바, 여기에서는 〈가부 내부〉에서의 애정지사 및 결혼관계, 〈가부와 외부 간〉의 결혼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제도로서의 결혼 양상들에 투영된 현실인식과 전망을 살피도록 하겠다.

『홍루몽』에서 결혼관련서사가 시작된 것은 대관원관련서사의 ㉞ 및 ㉠ 사건이 전개되는 중간 즉 〈대관원〉에 음란함이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시기로, ①(72회)에서 가영춘의 혼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이다. 이어서 설반-하금계, 가보옥-설보차, 가담춘-진해통제 주경의 아들, 사상운-병약한 남편, 설과-형수연, 설보금-매한림의 아들 등의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설반-하금계, 가보옥-설보차의 결혼은 친척 간의 결혼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가부 외부의 인물과 맺어진 결혼이다. 여기에서 죽음, 출가, 풍파 등을 겪으며 결혼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발견되는 바, 이는 『홍루몽』의 대관원이 갖는 문학사회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홍루몽』에서는 〈가문 내부〉의 친척 간 결혼이 허용되고 있는 바, 가련-왕희봉의 결혼관계를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한 가보옥-설보차, 설반-하금계의 결혼관련서사를 통해 작가의 현실 인식을 살피겠다. 『홍루몽』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가보옥과 임대옥 및 설보차 간의 삼각관계에 크게 주목한다. 가보옥과 임대옥은 고종사촌간이며, 가보옥과 설보차는 이종사촌간인 바, 이 글은 이들의 관계가 근친혼적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가보옥과 임대옥 간의 관계는 근친혼을 맺고 있는 가련과 왕희봉의 관계와 엮어 볼 때, 단명함을 공통점으로 한다. 가모는 임대옥을 보옥의 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의 허약한 체질과 예민한 성격을 들고 있는 바, 가모는 미리부터 임대옥의 단명함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보옥과 임대옥은 결혼관계로 맺어지지는 못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상대방을 유일한 배필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을 가르는 단명함이라는 소인은 주목해 볼 만하다.

왕희봉은 왕부인의 친정 조카로서 왕부인의 시댁 조카인 가련과 결혼관계를 맺는 인물이다. 그녀는 앞에서 살폈듯이 가부의 몰락과정에서 큰 희을 겪는, 가부의 인물들이 탄핵을 받고 가산 몰수를 당한 사건에서 결정적인 비밀을 제공한 인물이다. 왕희봉은 영국부의 안살림을 맡고 있으면서 영국

부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결정적 가부장권이 부재하는 가부 내에서 그 역을 대리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㉔(55회), ㉕(72회)에서 나타나듯이 왕희봉은 유산을 하고, 그 이후 혈봉증으로 의심되는 병을 지속적으로 앓게 되는데, 이러한 왕희봉의 병약함은 『홍루몽』의 서사전개 양상을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앞에서 정리한 바 있듯이, 55회 이후로 『홍루몽』은 그 갈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긴장감과 탄력을 얻어 급격하게 전개된다. 왕희봉관련서사를 대관원관련서사와 결부하여 볼 때, 37회에 가담춘의 발기로 결성된 ‘해당시사’는 활발한 모임을 갖다가, 왕희봉이 병을 앓는 55회 이후 이환과 가담춘이 왕희봉을 대신하여 영국부의 집안을 맡게 되면서 거의 해체된다. 70회에서 ‘해당시사’의 재건을 시도하지만 이 시기 가정이 상경하여 보옥이 서당에서 문장을 공부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그 모임이 완전히 해체된다고 볼 수 있다.

영국부와 영국부를 통틀어 권세를 부리던 왕희봉이 병을 앓게 되자, 이렇듯 『홍루몽』의 시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서사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바, 이는 가부의 몰락이라는 서사적 갈등이 심화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른바 경제적 측면에서 가부의 가부장권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 왕희봉의 병약함과 이른 죽음은 가부의 몰락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할 수 있겠는데, 그 의미를 가보옥·임대옥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명함과 결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은 여기에 담긴 의미로서, 『홍루몽』이 가문 내부의 순혈주의적 결합을 지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자 한다.⁵²⁾ 이처럼 〈중심〉 내부에서의 결혼관계를 통한 결연이 단명함을 이유로 이른 파국에 직면하게 됨은 생물학적인 연속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중심〉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궁중의 내탕(內帑)에 들어갈 전량과 잡료를 구하여 조달하는 일을 맡고 있는 궁중 상인의 아들인(㉑, 107) 설반과, 먼 친척간이면서 같은 상인계층

52) 필자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홍루몽』보다 후대에 발표된 바진(巴金)의 『격류삼부곡』을 가족사소설의 관점에서 박경리의 『토지』와 비교 연구한 논문에서 전개한 바 있다. 김은경,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巴金)의 『격류삼부곡』 비교 고찰: ‘가족사소설’의 관점에서」, 앞의 논문.

으로 거금을 가진 집안의 딸인 하금계의 결혼 또한 유사한 맥락에 놓인다 하겠다. 방종하고 음란한 하금계는 설반의 시첩 향릉을 죽이려다 제 꺾에 넘어가 비상을 먹고 비명횡사하고 만다. 하금계의 폐악 때문에 설반은 집을 떠나 살인을 저지르게 되며, 이로 인해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만다. 경제적 상층 계급간의 결혼관계에서 비롯한 이러한 불행은 결혼을 통해 가문의 결속을 다지고 이익을 높이려는 의도에 반하여 가문의 몰락을 부추기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보옥과 설보차의 관계에서 가보옥이 출가를 결정함으로써, 이들의 결혼 관계가 이른 끝맺음을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맥락에 놓인다 하겠다. 『홍루몽』은 “벼슬자리 지켜주는 부작”인 호관부(護官符)의 존재(①, 100)를 4회에서부터 내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층계급의 가문들이 결혼관계 등을 통한 결속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부와 권세를 더욱 막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쓰이는 것이다.⁵³⁾ 이러한 호관부의 존재는 청대 봉건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집단의 거대한 부패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 『홍루몽』이 단명함과 출가 등의 모티프를 통해 근친혼이 이른 파탄에 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모티프들을 통해, 봉건사회 〈중심〉의 모순으로부터의 출구 마련을 위한 모색을 미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⁴⁾ 당대의 부계사회에서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 한 편이 이른 죽음을 맞이하거나, 출가를 하는 상황은 가문의 혈연적인 연속성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부〉와 〈그 외부〉 간 결혼관계를 통해서도 유사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대관원〉에 거주한 자매들 가운데, 가영춘과 사상운의 결혼에 대

53) 4회에서는 향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된 설반을 위해, 복지부동의 자세로 판결을 내리는 응천부의 지방관 가우촌의 비리를 보여준다. 그는 아전이 일러주는 ‘호관부(護官符)’의 존재 때문에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데, 그 호관부는 벼슬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씨(賈氏), 사씨(史氏), 왕씨(王氏), 설씨(雪氏) (①, 101) 가문을 결코 건드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54) 배우자를 잃은 설반과 가련은 각각 향릉과 평아라는 시첩이던 긍정적인 인물들을 정실로 맞이하는데, 이는 친척 간 결혼의 순혈주의적 결연과 비교해 볼 만한 부분이다.

해 살펴보자. 이들의 결혼은 당대 상층부를 이루는 〈중심〉 간 결속의 범주에 드는 것인바, 이들은 결혼생활의 풍파를 견디어 내지 못하고 이른 죽음을 맞거나, 죽음을 앞둔 남편의 병 수발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가영춘의 짝이 되는 손소조(孫昭祖)는 일찍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 가부와 인연을 맺어왔던 가문 출신의 인물로서, 가영춘의 친부인 가사와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가영춘과 결혼하게 된 인물이다. 이들의 결혼에 대해 가모, 가정, 왕부인 등 가부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나, 가사는 딸의 인생보다는 자신이 손소조와 맺고 있는 관계를 우선시하여 가영춘의 결혼을 강행한다. 결국, 가영춘이 손소조의 꾀박을 견디지 못하고, ⑩에서 이른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결혼은 끝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혼을 통해 오로지 또 다른 ‘호관부’를 만들고자 한 시도가 쉽게 좌절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가모의 사랑을 받아 온 사후가의 인물 사상은 인물이 번듯하고 성품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지만, 남편이 폐병을 얻어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에 처한다. 이처럼 가영춘과, 사상의 남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단명함의 모티프는 결혼관계를 통해 만연하게 되는 〈중심〉의 모순과 부패상을 적발하고 그 궤멸을 지향하는 현실관을 보여준다 하겠다.

물론 대관원의 자매들이 결혼관계 내에서 모두 이른 죽음과 풍파를 겪는 것은 아니다.⁵⁵⁾ 가정과 시첩 조이랑 사이에서 태어난 가담춘의 결혼에서는 별다른 풍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의 결혼은 가정이 강서 양도직에 있을 때 상위 관청의 절도사와 친척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가정은 황제의 엄격한 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탄핵을 받는데 그치게 된다. 즉, 상층 〈내부〉 간의 결속과 그에 따른 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춘의 결혼이 앞에서 살핀 결혼들과 구별되어 주목되는 것은 그녀가 시첩의 딸로서 합리적 이로움을 추구하며 리더

55) 설반의 사촌동생인 설과와 형부인의 조카인 형수연 간의 결혼, 설보금과 매한림의 아들 간의 결혼, 이기와 진보옥의 결혼 등은 결혼을 통해 더욱 행복해지거나 무난한 결혼생활이 예견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이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에 논외로 한다.

의 자질을 보임으로써, 당대 전형적 여성상과 거리를 둔 존재라는 데에 있다.

왕희봉을 대신하여 이환과 함께 영국부의 살림을 맡기도 하는 가탐춘은 고리대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기적 이로움을 추구하여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안살림을 살려 보고자 한 왕희봉과 달리, 넓은 대관원에서 합리적 이득을 취할 생산적인 방안을 강구해 낸다. 또한 문맹인 왕희봉과 달리 시사를 읊을 수 있는 가탐춘은 ‘해당시사’의 발기인이기도 한 바, 가탐춘의 이와 같은 면모는 <대관원>의 자매들 가운데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해당시사’를 발기하면서 가탐춘이 가보옥에게 보낸 편지는 그녀가 입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긍정한 가운데 시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는 균형 잡힌 인물임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가탐춘의 이처럼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면모는, 앞의 <표 2>에서 정리한 다른 자매들, 특별히 가탐춘과 마찬가지로 인품이 훌륭하지만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설보차와 차별화되는 바, 『홍루몽』의 작가는 가탐춘을 통해 이상적인 여성인물 형상을 성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탐춘의 무난한 결혼생활이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다.

1. 박경리 문학(『토지』를 중심으로)과의 비교 논의

필자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석사논문에서 ‘가계적서사’와 ‘남녀애정관계서사’가 『토지』의 거대서사를 이루는 양축인 것으로 보고, 그 서사구조를 밝히고 있다.⁵⁶⁾ 그 과정에서 박경리의 『토지』에서 작동하는 동일성과 차이의 원리를 논한 바 있다. 남성인물이 주도하는 가계적서사가 선대와의 관계에서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남녀 간의 애정관계서사는 차이를 추구함으로써 가계적서사의 동일성추구와 길항하여 근대성을 모색함을 살핀 것이다. 중국문학 내에서 『홍루몽』과 영향관계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격류

56) 김은경, 『『토지』 서사구조 연구』, 앞의 논문. / 이는 ‘가족사소설’을 이루는 수직적서사 및 수평적서사 축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석사논문에서 또한 『토지』의 ‘가족사소설’적 성격이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삼부곡』⁵⁷⁾과, 『홍루몽』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기에 주목된다. 이른바 남녀 간의 결혼관계를 통한 동일성의 교란이란 측면에서 이들 작품들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설근의 『홍루몽』에 비해 박경리의 『토지』에서는 ‘차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결혼관계들’을 통해 근대성을 모색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스토리시간 및 집필시기와 관련하여 문학사회학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박경리의 『토지』가 1879년에서 1945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1969년에서 1994년까지를 집필시기로 한 작품이라면, 조설근(1715?~1763)의 『홍루몽』은 작가가 죽기 전 10여 년간을 창작시기로 하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적 배경을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18세기 청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토지』에서 ‘차이들’에 대한 수용을 통해 근대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은 이러한 문학사회학적 배경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본고는 『홍루몽』의 결혼관련서사에 나타난 단명함, 출가, 풍파 등의 모티프들이 봉건사회 <중심>의 공고함을 그 저변에서 흔드는 생물학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논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작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소극적으로나마’ 담겨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VI. 결론

이 글에서는 조설근의 『홍루몽』에 대한 정치한 작품론을 전개함과 아울러, 필자의 박경리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적용하여 비교논의를 하고 있다. 『홍루몽』에 대한 논의는 공간기호학적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는 바, 아울러서 이 작품을 가족사소설의 범주에 두고 논의하고 있기에 문학사회학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홍루몽』을 『토지』를 중심으로 한 박경리 문학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일차적 근거를 두 문학 세계 내에 자리하는 뚜렷한 변별점들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공간’과 ‘감정’의 문제에서 나타난다.

57) 김은경,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巴金)의 『적류삼부곡』 비교 고찰: ‘가족사소설’의 관점에서」, 앞의 논문.

필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박경리 문학의 특질을 밝히는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는 이에 기초하여 중국 내에서 경학에 대응하는 홍학을 이를 만큼 많은 논자들의 관심을 받아 온 『홍루몽』에 대한 작품론에 조금 이나마 새로운 관점과 견해를 보태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경리 문학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문학연구를 동아시아 문화권의 영역으로 넓히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본론의 논의는 II장에서 가부의 몰락을 서사의 주축으로 파악한 가운데 『홍루몽』 전체적인 서사전개양상을 정리하고, 또한 그 공간성을 조감한 가운데 시작된다. III장에서는 <중심>과 <주변>의 모순 간 길항작용을 가부의 몰락과정과 결부하여 살폈다. 『홍루몽』에서는 강력한 황권을 내세우는 중앙 집권적국가관련서사와 가부장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부관련서사가 대칭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변>에 <중심>의 황권이 그 영향력을 실제로 미치지 못하며, 지배층에 대한 황제의 징벌 보다는 은혜가 과하게 주어지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홍루몽』에서 반복적으로 피력되는 태평성세가 기실 허장성세에 불과함을 논의하였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강력한 가부장권이 부재하는 가부 내에서 주인, 즉 <중심>의 관 대함과 엄격함 간의 불균형이 <중심> 자체의 문제점들과 더불어, 하인들 즉 <주변>부의 붕괴와 <중심>에 대한 교란을 낳음으로써 가부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논하였다.

비교논의는 조설근의 『홍루몽』과 박경리의 『토지』가 공통적으로 ‘가족사 소설’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한 가운데, 두 작품의 ‘공간’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홍루몽』은 비록 황권과 태평성세의 실상에 대한 통찰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서 <중심>에 무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됨으로써, 그 초점이 가부의 외부보다는 <가부의 내부>로 모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비교 논의를 통해 이러한 ‘집중적인 공간성’이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는 『토지』의 ‘확산적인 공간성’과 크게 다름에 주목하였다. 청대와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의미 부여를 해 보았다.

IV장에서는, <가부>를 <대관원>의 외부로 보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의 주

된 관점인 것으로 파악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논박하였다. 하나는, 〈대관원〉의 인물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전각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관원〉 내부에 탈속성과 세속성이 공존함을 살피고, 이러한 〈대관원〉의 세계와 그 외부로서 공명을 추구하는 〈가부〉 간의 경계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대관원의 성격이 ‘시사의 시기’에서 ‘문장의 시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홍루몽』의 ‘정학’을 통해서이다. 『홍루몽』의 서사를 통해 정학의 개념을 귀납적으로 세우는 가운데, 정과 음, 의음 등으로 개념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중 『홍루몽』 정학의 주축을 이루는 ‘의음’이 영원성, 육체성의 무화, 개방성을 특질로 하고 있음을 귀납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정과 음, 의음 간의 경계가 ‘인식론적으로’, ‘공간적(실재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논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대관원〉의 성격이 또한 정과 의음에서 음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은 곧 가부의 몰락과정과 동계에 놓이는 바, 특별히 음란으로 이행하는 〈대관원〉의 성격변화가 가부의 몰락을 부추긴 도덕적 파탄을 잘 보여주는 축소판임을 논하였다.

이와 관련한 비교 연구는 두 작품을 통해 도출되는 텍스트내적인 또 다른 공통점, 즉 ‘감정’의 문제에 천착하여 이루어졌다.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감정서사 자체의 변별점, 그리고 감정의 양적·질적 측면과 시공간성 간 관련성을 주장한 ‘감정경제’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논하였다. 필자는 박경리 문학의 주축을 이루는 사랑서사의 특질이 배타성과 유일성, 그리고 육체성의 무차별화, 새로운 가치로의 지양임을 논한 바 있는데, 이를 앞에서 도출한 의음의 특질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짚어 보았다. 나아가서 박경리가 확연하게 분류되는 사랑서사의 양태들을 통해,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임과 아울러 현실 참여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면, 조설근은 그 경계가 부서지기 쉬운 ‘정학’의 요소들을 통해 청대 귀족사회의 도덕적 파탄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임과 아울러 초월적 비전을 내세우고 있음을 논하였다. 한편, 감정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홍루몽』의 가보옥관련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필자는 기존 논문을 통해 『토지』의 확산적 시공간성과 ‘감정의 질적 전화’ 간 관련성을 논한

바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홍루몽』의 협소한 집중적 (시)공간성과 작품 내에서 일관되게 양적·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음’의 감정 간 연관성을 피력해 보았다. 한편, 『홍루몽』의 대단원에서 이러한 ‘의음’의 감정이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감정 흐름을 〈가부〉를 중심으로 한 〈현세〉와 가보옥이 몽중에 체험하는 〈태허환경〉이라는 다층적 시공간성과 관련하여 살폈다. 이른바 〈현세의 협소한 공간성〉 내에서 고조된 상태에서 유지되던 가보옥의 ‘의음’이 ‘급격하게 소멸’하게 됨에 주목하여, 가보옥으로 하여금 ‘전세 및 현세의 운명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태허환경〉이라는 초월적 공간성에 그 필연성이 자리함을 논하였다. 『홍루몽』의 감정경제란, 협소한 공간성 내에서는 일관되게 유지되던 감정양태가, 〈현세의 하룻밤〉과 〈태허환경에서의 전세 및 현세의 운명 체험〉이라는, 시간적으로는 비대칭적인 다층적 공간성 내에서 급격하게 소멸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음’이 사회적 제도로써 용인되는 결혼관계들을 통해 작가의 현실관을 엿볼 수 있었다. 〈가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친척 간의 결혼에서나, 〈가부의 인물과 그 외부의 사람〉과 맺어지는 결혼관계 모두에서 단명함, 풍파, 그리고 출가의 모티프들이 반복하여 나타남에 주목하였다. 호관부의 존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중심〉을 더욱 공고하게 결속하는 수단이 되었던 결혼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측면을 통해 청대 봉건 사회 주축인 〈중심〉의 궤멸을 예견하는 현실관을 읽을 수 있었다. 결혼관계의 이른 파탄이란 가족사의 혈연적 연속성을 위협하는 소인이 될 수 있는바, 이 글은 결혼관련서사들을 통해 당대 사회에 대한 전망을 읽을 수 있었다. 나아가서 가부의 3세대 인물로서 무난한 결혼생활을 하는 가담춘의 인물형상을 통해서도 작가의 진보적인 현실관을 읽을 수 있었다. 가담춘은 합리적 이로움을 추구하고 리더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서, 유가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탈속적 혹은 소극적으로 성격화된 다른 여성인물들과 대비하여, 주목해 볼 만하였다.

일찍이 필자는 『토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석사논문을 통해, 이 작품에서 남성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계적서사의 동일성 추구가 남녀 인물

의 애정관계서사를 통해 수용되는 차이와 길항함으로써, 근대성이 모색되고 있음을 논한 바 있다. 결혼이란, 〈내부〉 간 혹은 〈중심〉 간 결연을 통해 그들 간의 결속을 다지거나, ‘타자’와의 결연을 통해 차이를 수용함으로써 〈중심〉 혹은 동일성으로부터의 탈주를 가능케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홍루몽』 또한 〈중심〉 간 결연들에 상존하는 불행들을 부각함으로써, 우회적으로나마 중세 봉건사회의 〈중심〉으로부터의 출구를 모색하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상 정리한 바와 같이 본고는 공간기호학적 관점에서 『홍루몽』에 대한 정치한 작품론을 전개함과 아울러, 박경리 문학과와의 비교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대와 국가를 달리하는 두 문학세계에 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볼 수 있었으며, 그 문학사회학적 함의들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필자가 이어가고 있는 ‘감정경제’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경리, 『토지 1~16』, 솔출판사, 1996.
조설근, 『홍루몽 1~6』, 최용철·고민희 옮김, 나남, 2014.

2. 단행본

- 김학주, 『개정중국문학사』, 신아사, 2013.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1995.
이계주, 『홍루몽 시사 간론』, 도서출판 다운샘, 2005.
최용철,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도서출판 신서원, 2007.

- 魯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 第九卷.
_____, 『中國小說의 歷史的變遷』, 魯迅全集 第九卷.
俞平伯, 『紅樓夢辨』, 臺北:河洛圖書出版社, 1979.
周汝昌, 『紅樓夢與中華文化』, 北京:工人出版社, 1989.

Ru, Yi-Ling, *The Family Novel-Toward a Generic Definition*, NY: PETER LANG, 1992.

Yu, Anthony C., *Rereading the stone: Desire and the Making of Fiction in Dream of the Red Chambe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3. 논문

- 高啟喜, 「中國新文學運動 초기의 『紅樓夢』 評價에 관한 考察」, 『中國小說研究會報』 8, 1991.
_____, 「『論文提要』 『紅樓夢』의 現實批判的 意義 研究」, 『中國小說研究會報』 18, 1994.
_____, 「『《紅樓夢》에 반영된 佛教에 관한 考察」, 『中國語文論叢』 11, 1996.
_____, 「毛澤東의 《紅樓夢》 평가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 14, 1998.
_____, 「『《紅樓夢》의 구성양상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 23, 2002.

- _____, 「文化大革命시기의 《紅樓夢》 평론 小考」, 『中國語文論叢』 27, 2004.
- _____, 「하기방(何其芳)의 《홍루몽》 비평」, 『中國語文論叢』 29, 2005.
- _____, 「중국현대작가와 《紅樓夢》」, 『中國小說論叢』 41, 2013.
- 김은경, 『토지』 서사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 _____, 「갈등구조를 통한 박경리 『토지』의 담론특성/미학 고찰」, 『비교문학』 33집, 한국비교문학회, 2004. 6. 30.
- _____,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의 경제」, 『(서울대학교)人文論叢』 55집,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06. 6. 30.
- _____, 「박경리 문학 연구: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8. 2.
- _____,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巴金)의 『격류삼부곡』 비교 고찰: ‘가족사설’의 관점에서」, 『현대문학연구』 29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12. 20.
- _____, 「사랑서사와 박경리 문학」, 『(서울대학교)人文論叢』 67집,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2. 6. 30.
- _____, 「박경리 문학 연구: ‘움직임動’과 ‘멈춤精’의 상상력」, 소명, 2014. 10.
- 조미원, 「紅樓夢에 나타난 情의 敍事化 樣相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4.
- 한혜경, 「『홍루몽』의 서사구조에 대한 고찰: 초점화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32, 2003.
- 余英時, 「紅樓夢의 兩個世界」, 『中國古典小說論叢』, 第二集, 夏志清 等, 幻獅文化公司, 民國 64년.
- 劉敬圻, 「紅樓夢主題多義性論綱」, 『中外學者論紅樓』,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1989.
- 崔炳圭, 「紅樓夢賈寶玉情案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校 82學年度 博士學位論文.
- 崔溶澈, 「論文提要 清代紅學研究」, 『中國小說研究會報』 18, 1994.
- 何其芳, 「論紅樓夢」, 『紅學三十年論文選集』, 百花文藝出版社, 1983.
- 夏志清, 「紅樓夢裏愛與憐憫」, 『海外紅學論集』, 胡文彬, 周雷 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胡適, 「紅樓夢考證(改定稿)」, 『胡適紅樓夢研究論述全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Lee, Haiyan, “Love or Lust? the Sentimental self in Honglou Meng”,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19, 1997.

Lotman, Iu. M., 「예술적 공간에 관한 소고」,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러시아 시학연구회 편역, 열린책들, 1996, pp.13-29.